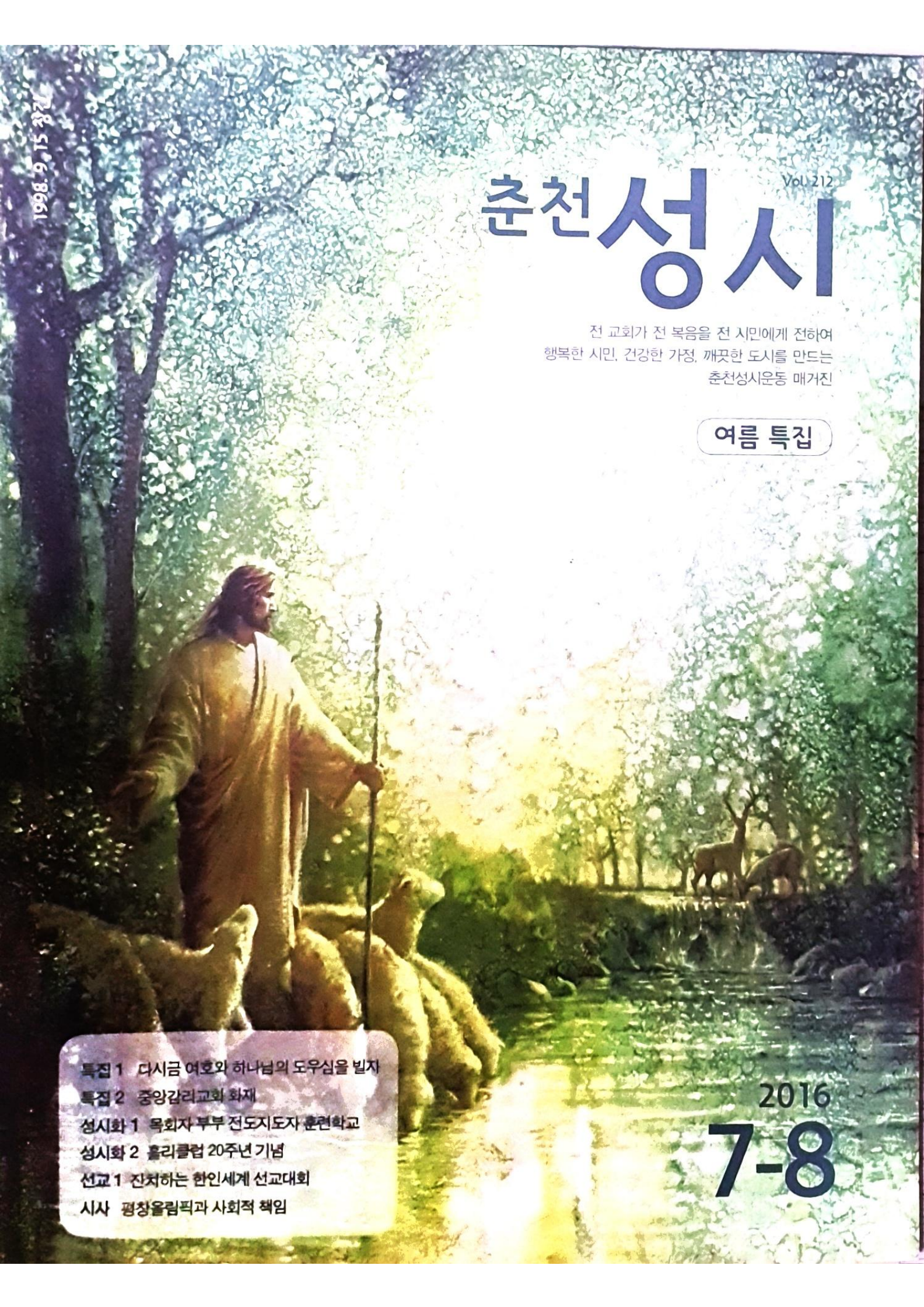
1998. 9. 15. 창간

Vol. 212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여름 특집



특집 1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자
특집 2 중앙감리교회 화재
성시화 1 목회자 부부 전도지도자 훈련학교
성시화 2 홀리클럽 20주년 기념
선교 1 잔치하는 한인세계 선교대회
시사 평창올림픽과 사회적 책임

2016
7-8



Out of memories 53 x 45cm 천 위에 아크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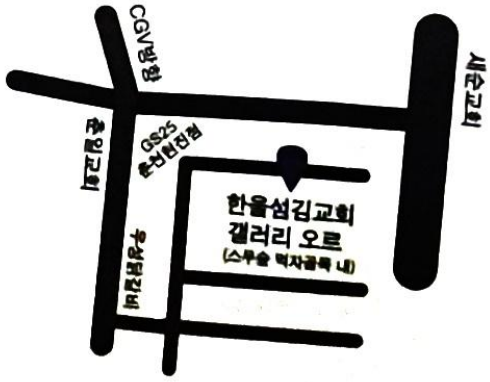
권태완 초대전 Kwon Tae-Wan

2016.07.29 ~ 8.30

Opening 2016.07.29 오후 4시

구상전
강원 미협전
춘천 미협전
한나절의 일탈전
서양화 3인전
카톨릭 미술인전
한중 교류전
한일 교류전 외 다수

asnowflake@daum.net



한울섬김교회 목사 노에녹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 1길 16번지

커버 스토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김용성 작가 I oil on canvas I 91 x 72,7 cm I 2006

갈급한 우리영혼은 시냇물 찾아 헤메는 목마른 사슴과 같다
그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해갈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1)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2)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연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CONTENTS

2016. 07-08
Vol. 212







커버스토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01
Editor's Note		03
7-8월 캘린더		04
사설	연합의 축복, 하나님의 열심	08
광복절특집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자	10
특집 2	춘천중앙감리교회 화재	12
성시화 1	목회자 부부 전도지도자 훈련학교를 마치고	14
성시화 2	홀리클럽 20주년 기념 특별집회 스케치	18
성시화 3	제1회 6.25 구국기도회	20
선교1	잔치하는 한인세계선교대회	22
쉼 한편	쉽게 씌여진 시	25
선교 2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26
예수안에서 본 예술	집세가 싼 동네	29
통일 1	복음통일과 순교적 사랑	30
통일 2	시대적 사명	33
종교개혁	칭의 없이 성화 이루려 한 루터	36
기획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시나요?	40
시사	평창동계올림픽과 사회적 책임	42
칼럼	여름 독서	45
교회탐방 1	예사랑교회	46
교회탐방 2	이음교회	50
인물	바른나라세우기운동본부	54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키워드 소통	59
건강이야기	스트레스와 건강	62
예향/만평	예향/만평	65
영화이야기 109	신은 죽지 않았다 2	66
예수의 미소 71	라면이야기 (2)	68
음악이야기	GIVE THEM ALL 주님께 드려요 "에비"	70
알려드려요		72
6-7월을 돌아보며		74
후원자명단		80

Editor's Note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올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복음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돌리게 된다. 아마도 7,8월에는 어김없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이 계획되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애쓰고 수고한 만큼 이렇다 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허탈감에 빠지곤 한다. 이렇게 하나 둘 생명력을 잃어가다 보니 교회에서 아동부 모임이 사라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모임이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몸은 움직일 때마다 힘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지치게 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복음 중심적인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것들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들 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고 삶의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는가?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복음이 아닌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수록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완전해야 하고,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다. 주님께 사명을 받아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7,8월은 사역도 많지만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휴가도 일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래서 정작 휴가를 마치고 나면 새 힘을 얻어 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 쳐져서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몸에 노동에 대한 DNA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 무엇을 해도 일을 하려고 반응하는 것을 본다.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쉼을 갖기를 바란다. 당신은 행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며 자신의 능력을 탓하며, 자신의 학벌을 탓하며, 자신의 직업을 탓하던 한 형제가 생각난다. 난 그에게 너의 능력이나, 너의 학벌이나, 너의 직업이나, 너의 신앙의 열심에 따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진심으로 믿을 때 좋은 일은 날마다 일어난다고 권면한 적이 있다. 당신은 언제 가슴이 뛰고, 언제 엔돌핀이 솟구치며,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누군가가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지 않은가? 우주에 충만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가슴이 뛰지 않았던가? 간혹 내가 실수를 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조건을 걸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신다. 올 여름의 사역과 쉼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

편집장 최영조

2016 7

SUNDAY | MONDAY | TUESDAY

31

·· 이달의 말씀 ··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3
- 강원CBS 21주년 선교대회
  오후 2시30분, 안디옥교회

4
- 장로연합회
  오전 6시 30분, 반석감리교회
- JDM ~22(3주)
  여름선교사훈련, JDM훈련센터
- JDM ~16(2주)
  중앙아시아 해외선교훈련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 어린이전도협회 ~8일
  3일클럽전도자훈련
- CCC~20 일본단기선교
- IVF ~8 여름신앙훈련

5
- CCC ~ 22일
  동아시아 단기선교
- 통일기도모임
  매주 오후 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저녁 7시
  동부장로교회

·· 이달의 기도제목 ··

· 한국 교회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다음세대를 위한 여름사역이 열리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고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다음세대가 일어나 질주하는 세파 속에 당당히 자기를 개발해 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넉넉히 활동할 터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꿈을 품게 하시어 이 시대의 모세,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11
- 홀리클럽 실무임원회
  11시, 석사감리교회
- 쥬빌리 55차 춘천모임
  저녁 7시, 주향교회
- IVF ~27 평화기행
  중국, 러시아, 북한 접경

12
- 기드온 춘천캠프
  중부지역연합회 컨퍼런스
  오후 2시, 수원호텔 캐슬
- GBT ~16 까지
  지선학 평가회

17
-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장로순방예배
  오후 2시, 신성감리교회

18

19

24

25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 어린이전도협회 ~27 여름성경캠프
  화천토고미자연학교
- CCC ~26
  신구임원수련회
- 주니어쥬빌리 ~28
  여름캠프, 한동대학

26
- CCC ~8/23
  잠비아 단기선교
- 춘천직장인선교회예배
  오전 12시, 동부교회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 춘천성시본부 이사회 오전 7시 • 기드온 춘천캠프 매주 오전 7시, 조찬기도회	**2**
6 • 춘천지도자 기관단체장모임 오전 6시30분 • 춘천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7**	**8**	**9** •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안보견학 평택 해군 2함대 • 춘천성시합창단 정기공연 저녁 7시, 문화예술회관
13	**14**	**15** • CCC ~22 네팔 의료선교	**16**
20	**21**	**22** • 춘천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23**
27 • JDM ~30 청소년 수련회 제천 청소년 수련회	**28**	**29**	**30**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2016 8

·· 이달의 말씀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2

·· 이달의 기도제목 ··

· 춘천중앙감리교회를 주의 은혜로 감싸주소서.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새롭게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 춘천의 교회들이 각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도시의 부르심에도 응답하는 춘천 모든 교회가 되게 하소서.

· 10월에 있는 성시선교대회가 춘천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연합예배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복음이 춘천에 전파되는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소서.

SUNDAY	MONDAY	TUESDAY
	1 • JDM ~5 여름가족수양회 JDM 훈련센터	**2** • 통일기도모임 매주 오후 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저녁 7시 동부장로교회
7 •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장로순방헌신예배 오후 2시, 순복음춘천교회	**8** • CCC ~11 광야(무전전도)훈련 • IVF ~9 캠퍼스사역위원회 캠프 춘천 IVF 회관 • 쥬빌리 56차 춘천모임 저녁 7시, 주향교회	**9** • JDM ~12 지역간사수련회 • IVF ~12 지방사역협의회 춘천 IVF 회관
14 • 기드온순방예배 오전 11시, 거성교회 • 71주년 광복기념예배 저녁 7시30분, 석사감리교회 강사 : 이덕주목사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15** 광복절	**16** • 춘천지도자 기관단체장모 오전 6시30분
21 • 기드온순방예배 오전 11시, 제일감리교회	**22** • IVF ~26 캠퍼스별 리더캠프 춘천 IVF 회관 • 예수전도단 ~26 간사총회 횡성웰리힐리파크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23** • 춘천직장인선교회예배 오전 12시, 동부교회
28 • 기드온순방예배 오전 11시, 제일순복음교회	**29** • 어린이전도협회 ~9/9 TCE교사대학1단계 오전 10시, 저녁 7시 춘천지회 사무실	**30** • 홀리클럽 85회 정기기도 오전 6시30분, 제자감리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 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 오후 2시 • 춘천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4**	**5** • 춘천기드온조차모임 매주 오전 7시	**6**
10	**11** • ESF ~13 40주년 국제수양회	**12**	**13**
17	**18**	**19**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오전 7시 • 춘천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20**
24	**25**	**26**	**27**
31			



연합의 축복

하나님의 열심

글 홍요셉목사(예사랑교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즉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창 1:26),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요 17:22)

8년 전에 4명의 목회자들이 각 교회를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시작했다. 그 뒤로 합류하는 목회자들이 하나 둘 늘어갔고, 몇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8년이 지난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9교회 목회자들이 매주 수요일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다. 초교파적으로 9명의 목회자들이 8년 이상 기도회를 이어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저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모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2015년 연말부터 그 증거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꿈이있는교회(김은선목사)가 주향한교회와 통합하면서 석사동시대를 끝내고 고은리로 이사하여 고은교회로 자리잡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후에 예배당 뒤 400평이 넘는 땅을 매입하여, 소원으로 품고 있던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한섬교회는 5년 동안 YMCA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다가 꿈이있는교회가 비우게 된 예배당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도회 멤버들의 형제애가 강하게 작용하여 연착륙할 수 있었다.

일련의 일들로 인해 동역자들의 입에서 예광교회와 사랑의교회의 통합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쯤으로 들렸는데, 갈수록 그 목소리는 커졌고 구체화되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조영춘목사와 홍요셉목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각자 부부가 금식기도에 들어갔고, 구체적인 응답을 확인하고 두 교회가 통합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약 2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드디어 지난 3월 13일 주일 아침에 두 교회가 통합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예광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은 조영춘 목사님을 위한 사역을 마련하고 돕기 위해 시작한 것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6월 19일에 주향교회에서 '한아름선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8개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국내외를 막론한 전방위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한아름선교회가 조직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세 분의 파송 선교사 – 대표이사 조영춘목사, 중국(단동)선교사, 일본 선교사(동경사랑의교회) – 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약 50명의 성도님들이 후원자로 지원하여 주었다.

우리는 요즘 모일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한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는 그저 모여서 서로의 기쁨도, 어려운 일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 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만남을, 연합을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린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자

어김없이 돌아오는 8.15 광복절. 세상에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는 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그 사실을 일제 식민지 생활에서 뼈저리게 체험했다. 나라 잃은 백성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자기 민족의 슬픔, 유대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절절이 나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것이 과거처럼 독립운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큰 애국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33:12-19)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 첫 날 개원 기록에 보면, 이승만 의장의 사회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 나라를 지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다가 광복을 맞이하고, 6.25전란을 거쳐 폐허가 되었음에도 제3세계국가 중 거의 전무후무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도 아니다. 겨우 한 사람의 노벨평화상 외에는 어떤 노벨상도 나오지 못했

다.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해 봐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33:12-19)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라는 반드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의지하는 나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 쉽게 무너진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국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무슬림들을 받아들인 영국과 프랑스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프랑스는 더 이상 천주교국가라고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30%가 이미 무슬림이기 때문이다. 30년만 지나면 프랑스는 무슬림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라가 튼튼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라의 방패요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래전 프랑스의 지성인 토크빌은 초기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미국의 항구, 비옥한 토지, 광산이나 상업이 번창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위대함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미국의 한 교회에 들어가 목사가 외치는 나라 사랑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미국의 위대하고 단합된 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말하거니와 미국은 위대하다.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은 복 받은 민족이다"

그렇다. 더 나아가 세계에 성시화를 통해 도시복음화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춘천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도시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또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아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문에 속한 모든 자녀 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명문가문이 되는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2016년 광복절을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글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 성시매거진 편집위원)



춘천중앙감리교회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되다

글 편집부

오래된 역사를 지닌 한국 장자교회 중 하나인 춘천중앙감리교회가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되는 사건이 7월 18일(월) 오후5시경 일어났다. 천정에서 불이 시작되었기에 스프링쿨러가 작동될 수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본당 전체가 4층까지 연결되어 있기에 전체가 전소될 수밖에 없었다. 예전 숭례문 화재사건이 났을 때도 내부가 다 타도록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예배 시간이 아닌 월요일이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방화문이 내려와 본당 외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고, 교회 역사관이 보호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바람

이 불었던 날이었지만 교회 주변의 주택이나 전철 철도 쪽으로도 화재가 확산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번 화재소식은 중앙감리교회 성도들은 물론하고 춘천 전교회와 성도들이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118년 역사를 지닌 중앙감리교회이기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것이다. 중앙감리교회 성도들이 전소 후에 찾아가 교회를 바라보며 목놓아 울며 기도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큰 교회 화재 소식에 모든 교회들이 경각심으로 본 교회 소방시설을 돌아봤을 것이다. 그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 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하고 주님께 물었을 것이다. 한국교회와 춘천에서도 역사가 깊은 대표적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한국과 춘천 교회를 향해 메세지를 던지고도 이런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일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 말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올려지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춘천의 재앙을 막고 새로운 영적대로가 열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이리저리 생각해본다. 그러나 어찌했던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라고 아뢸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춘천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이 한반도를 살려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 밖에는 올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중앙감리교회 권오서 담임목사님께서 언론사 인터뷰 중에서 "교회의 본질 사명을 되새겨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7월 24일 주보 표지에는 물음표가 조심스럽게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화재로 소실된 교회건물의 사진이 올려져있다. 백령문화관에서 눈물로 드려진 주일예배에서 권오서목사님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겔 36:24-28)"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되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지 못한 허물을 가졌으니 회개하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주님의 지체된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위기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일어날 때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보았던 불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태워 버리고, 심령을 다시금 일깨우는 거룩한 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도전을 주었다. 중앙감리교회만의 사건이 아니라 춘천내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고 들은 성도들은 물론 각 교회가 각자의 사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 이 도시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 듣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온전히 교회 모습이 회복되려면 1여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한국 초대교회의 불을 지폈던 복음의 열정으로 되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거 같다.

목회자 부부 전도지도자 훈련학교(ELTS)를 마치고

글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성시매거진 편집장)

"목사님들도 진짜 전도를 하시네요?"란 어느 평신도의 말이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 같아 좀 부끄러웠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전도훈련에 대해 배우고, 전도훈련을 시키지만 전도가 실재가 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주간에 걸쳐 춘천의 10교회 목회자 부부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오전에는 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전도실습을 실시하였다. 한림대학과 강원대학 캠퍼스에서 일대일 개인전도를 경험하며 넉넉지 않은 전도현장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할수록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열정을 모두에게 부어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배운 것으로, 복음에 대해 아는 것으로 복음 전도를 대신하려고 한다. 기가 막힌 성경공부와 훈련프로그램으로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 복음이 활성화되어 내 몸에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자신있게 전할 수 있겠는가? 나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권할 수 있겠는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1시간 강의와 1시간 전도실습으로 진행되었다.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기', '성령 충만 체험하기',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성령 안에서 전도하기', '지상명령성취에 참여하기', '재생산 전략(T4T)' 등의 주제에 대해 나누었다. 토의 시간에는 간증전도방법, 4영리전도 방법과 성령소책자 전도방법에 대해 실습 위주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정말 전도훈련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는 전도실습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세 차례 진행된 캠퍼스 전도에서 첫 주에는 말도 붙이기



힘든 전도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주 셋째 주에 조금씩 대화를 시도하며 전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도훈련을 마치며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몇 가지 사실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첫째, 왜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육성시키는 일이 사라지면서부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번 생각해 보라. 가정에 언제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생명이 태어날 때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은 자식의 자식을 볼 때가 아닌가? 어떤 분이 '손자 손녀를 안아보지 못했으면 기쁨을 논하지 말라' 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분명 사실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자식에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는 것을 본다면 교회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생명에 대한 기쁨은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들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은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다.

둘째, 제도화되어 가는 교회가 재생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1949년 공산주의가 시작되기 전, 중국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다. 중국 내에만 20,000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고, 중국 전체에 약 850,000~90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난 후, 정치적 지형이 변화되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교회를 태우고, 교회 예산을 빼앗아가고, 오르간을 부수고, 찬양대를 흩어버리고,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목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후 중국 교회는 비로소 그때에야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매주 전문 설교자들의 설교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보관하는 것이 어려움 때문에!) 성경을 외우고, 그것을 서로 돌려보기 시작했다. 모든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들으며, 10~15명이 되면 모임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새로운 교회를 분화하여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지 2~3주 정도뿐이 되지 않은 성도들도, 제자화 하여 그들이 계속 교회를 개척해나가도록 훈련하였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모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난 50년 동안 중국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850,000~900,00명의 성도들이 지금은 약 102,500,000 (약 1억2백5십만)이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의 일이다. 교회는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가" 제자를 만들고, "모두가" 교회를 개척하고… 더 이상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군대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쿠바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독재자 델 카스트로는 교회가 힘을 갖고, 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15명까지로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물론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는 너무나 훌륭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침체되었던 교회가, 그때에야 비로소 폭발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16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믿음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은 개척과 동시에 제자를 만들어 나갔다. 이것은 제자화는 교실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를 또 그리고 그가 또 다음 세대를 그리고 그가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가운데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은 그대로 증명된다. 초기 324년 동안 로마 사회 곳곳을 향해 급속도로 깊숙이 퍼져나갔다. 폭발적으로 로마 사회를 뒤집어놓으면서, "복음전도!"을 외치며 유기적인 공동체가 계속해서 운동을 일으키며 나아갔다. 그러다 A.D. 325이 되었을 때, 콘스탄틴 왕이 선포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기독교는 당당히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될 것이다! 이제 웅장한 성전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살아있는 운동(movement)이 죽어 있는 유적(monument)이 되고 말았다. 성직자들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강의실 형태의 예배당을 짓고, 일반 사람들은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자신들만의 언어로 기록한 후,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항하여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99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자서전의 말미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루터! 당신도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개혁을 마쳐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에 대해 루터는 "나는 할 수 없네, 첫 번째, 나는 그 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 두 번째, 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고, 회중들은 성경을 내용을 건네 듣는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곳' 이다. '듣는다' 는 것은 곧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점점 죽어가는 유물이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세대에 지상명령이 성취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뜻이다. 영적재생산 전략이야말로 지상명령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전도하는 가법번식에서 전도자를 키우고 세우는 영적승법번식으로 우리의 전략을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바라기는 훈련받은 목사님 사모님들을 통해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도훈련이 전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번에 훈련받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직접 강사요, 훈련자가 돼서 8월 20일부터 4주간 청소년 전도지도자훈련학교를 열게 된다. 계속해서 전도훈련지도자들이 재생산이 진행되어 춘천과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하루 속히 복음화 되기를 소망한다.

홀리클럽 20주년 기념 특별집회 스케치

취재 편집부

2016년 6월 8일(수) 저녁7시에는 신성감리교회(박상칠목사)에서 홀리클럽 20주년 기념 특별집회가 있었다. 이번 집회에서는 김기원목사(장위제일교회)을 강사로 모시고 "크리스챤의 정체성(시1:1-6)" 특별강연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금번 집회에서는 부회장 김종현장로(신성감리교회)의 사회, 수석부회장 임운식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조경화장로(소양침례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신성교회 한나 찬양대의 특별찬양과 회장 황병호장로(제일장로교회)의 인사 및 강사 소개후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가발전과 평화통일, 이슬람경제포럼의 취소, 춘천성시화와 홀리클럽"을 위한 합심기도가 부회장 이영규장로(석사감리교회)와 민병업장로(안디옥교회)의 인도로 있었고, 사무국장 석광훈장로(석사감리교회)의 광고후 박상칠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집회를 마쳤다.





강사 김기원목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현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여 크리스찬의 사명과 소명, 직분의 소중함을 잃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거짓된 사상 문화 정치 교육을 통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려는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만 번 10만 번 자랑해도 부족한 놀라운 사실이다."라며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며 기죽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종교인구조사에서 2005년에는 개신교 18% 천주교 11%, 2014년에는 개신교 21% 천주교 7%, 2015년 조사에서는 개신교 서울 26.3%(용산은 32.8%) 천주교 9.4% 불교 10.6% 이다."라고 조사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매스컴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독교 인구가 줄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도리어 조사결과는 더 증가되었다고 속지 말라고 하였다.

"헌혈하는 사람 90%가 기독교인이고, 복지사업의 60%가 기독교인이다. 선한 영향력 끼친 인물 80%이상이 기독교인이다. 또한 한국교회 선교사파송은 130년만에 171개국 27,205명이 파송되었다.(미국 198,000명) 그리고 우리 민족은 반만년 만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130년만에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20만명이 안 될 때에도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는가? 그런데 왜 기죽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복은 사람이 복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땅도 복된 것이다. 이 세상 운명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라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전해주었다.

홀리클럽은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평신도 선교단체로서 1996년 6월 8일 전국에서 최초로 태동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사회적 경력으로 갖춰진 노하우와 교회에 대한 헌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와 함께 가져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홀리클럽을 통해 빛을 발하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 있는 홀리클럽 회원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회

6.25 구국기도회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

취재 편집부

제1회 6.25 구국기도회가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강철주회장) 주최로 6월 25일(토) 오후4시에 창대감리교회(이성신목사)에서 열렸다. 금번 구국기도회는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위해 춘천교회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 개최하였는데, 강사로는 강명도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가 초청되었다.

남준섭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로 남궁연장로(중앙성결교회)의 대표기도, 장기영장로(강원침례교회)의 마태복음 22장 37-40절까지 성경봉독이 있었고, 헷세드 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강명도교수의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최승기장로(광장교회)의 헌금기도와 헌금시간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기도회가 이정희장로(창대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통성기도와 함께 특별기도시간이 이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마철규장로(제일장로교회), "춘천의 성시화, 연합회의 발전과 한국문학관 춘천유치를 위하여"는 백승문장로(행복한교회), "사이비, 이단 척결,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는 군목 이병길 소령(제2군단 참모)이 인도했다. 이어 김용헌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헌시낭독과 김진태국회의원의 축사와 회장 강철주장로(창대감리교회)의 인사말씀, 총무 유영충장로(안디옥교회)의 광고가 있었다. 그리고 기드온 색소폰 동우회의 반주로 애국가 제창이 있은 후,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이신 차덕수목사(강원침례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이날 강사이신 강명도 교수는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강의를 통해, "북한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게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 김일성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를 허물려는 사단의 전략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 한국에 기독교가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보루이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과 함께 말씀에 충실할 때 교회가 튼튼히 세워진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도발 역사"라는 다큐를 제작하며 조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1945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군사도발이 70년 동안 42,000번이 있었

다고 한다. 1948년 인민군 창설부터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북한의 경제력이 절정의 시기였을 때 정보활동 간첩활동이 활발했던 이야기, 그리고 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시도와 미얀마 전두환 대통령 암살시도와 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들의 배경 이야기를 소상하게 들려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현재에 이르렀고, 보이지 않는 힘인 성령의 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89년 소련이 해체되고, 92년 중국과 한국 수교이후, 북한은 외톨이가 되었고, 1993년부터 북한에서는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당시 본인은 북한 주석궁 부서장으로 권한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탈북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은 2300만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 본인이 장신대 간 것은 할아버지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데, 할아버지는 훌륭한 목사였으나 김일성을 도왔기에, 자신은 그 뿌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북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신학을 했다고 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45:5) 바로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라고 전하며 강의를 마쳤다.

복음적 평화통일 밖에는 이 한반도의 대안은 없는 듯하다. 이 일을 주도해나갈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일이다. 금번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에서 제1회 6.25 구국기도회를 갖고 장로님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며, 통일의 기쁜소식이 더 빨리 들려지게 될 거 같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셔서 만민의 복이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잔치하는 한인세계선교대회

글 이연희 목사(이미교회,성시해거진 편집위원)

1985년에 시작한 한인세계선교대회가 30주년을 맞는 올해 2016 KWMC를 참석하였다. 선교대회는 이름과 같이 한인성교사님들과 선교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 한국인과 한국인 교포들이 참석하는 대회였다. 선교에 열정을 다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한국인들을 다시 보게 되는 감동과 감격의 자리였다.

30주년을 맞는 한인세계선교대회-이하 KWMC라 함- 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잔치였다. 선교에 불타고, 헌신하는 한국인들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대회였다. 5대양 6대주에서 한 번의 일생을 드리고 사는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4년 동안 대회를 참석하고자 기다리며, 시간을 준비하고, 항공료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사모하다 참석하는 대회라는 것이다. 각 처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1천여명을 육박하니 옷차림과 의상이 패션쇼를 하는 듯하고, 언어도, 각 나라의 말로 인사를 하며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언어의 올림픽을 보는 듯했다.

선교대회는 본 대회라고 하는 "한인세계선교대회 KWMC2016"과 본 대회가 열리기전 선교사님들만 참석하는 "KWMF라는 MF대회라는 15차 선교사대회"가 열렸다. 또 "EM대회"라는 영어권대회가 있었다. MF대회는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선교사의 동질성과 하나 됨의 은혜를 나누고, 새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었다. 영어권대회는 MK를 비롯한 영어권에서 영어가 익숙한 자녀들의 대회였다. 그 영어권대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 대학생들이 KWMC 본 대회 기간 중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하는 순서를 가졌다. 선교의 현장에서 부딪힐 고난과, 아픔을 맛보기 전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각처에서 참석한 대 선배이신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눈물과 마음담은 기도를 해주고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선교 헌신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MF대회가 마치면 곧 바로 MC, KWMC 본 대회가 열려, 모든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께서는 선교지의 현장에서 가득 담아두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선교사 동료들에게 풀어놓으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은혜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대회의 강사를 보면, 한국에서 가신 한국인 강사와, 미주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교포 강사분, 외국인 강사와 선교사 강사들로 구성되었다. MF대회 때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한국인 강사들로 구성되어 새벽부터, 모든 시간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한국인 목회자, 전문인, 선교사 강사들로 인해 선교사님들이 은혜의 도가니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함성을 지르며, 다시 한 번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 선교지로 가던 초심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다.

170개국 27,700여명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한인선교사님들 중 1,20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한국 5만 개의 교회와 해외 디아스포라 7천개의 교회들이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이 한 눈에 보였다. 참석 못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25년 이상 선교사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찬하패를 증정하는 순서도 있었다.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중에는 45년, 35년등 참으로 긴 역사, 짧은 인생을 주님 나라위해 선교지에서 대를 이어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셔서 힘이 되고, 모범과 귀감이 되었다. KWMC를 사무총장으로 30년 동안 섬겨 오신 고석희목사님께서 "불멸의 선교행전"이라는 헌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님들 전체가 다 같이 일어나서 선교열정을 다시 한 번 불태우고, 결단하는 심장을 통성기도로 주님 제단에 올려드리는 시간에는 모두가 기도의 눈물바다였다. 선교사 사진전시관에는 90개가 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사진이 보는 이들에게 뭉클하게 하였고, 60여 개



넘는 선교부스를 통하여서는 선교의 채널이 다양하며, 선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한국인의 번뜩이는 지혜로 엿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시카고에서 30년 동안 개최된 KWMC가 서부 지역 남가주 아주사퍼시픽에서 개최되면서 준비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나? 염려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나 LA지역교회들의 연합과 단합된 모습이 여러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나타났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본부스텝들과, 미리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의 식사를 교회들이 돌아가며 한국인의 밥상을 배달하여 제공하고, 차량과 공항 픽업, 대회기간 중에 자원봉사의 많은 손길을 담당해주었다. 준비위원들로 섬겨주신 교회의 성도들의 자원봉사, 저녁집회시마다 100여명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항픽업과 영접도 맡아주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박성민 부총장께서는 선교사님들께 저녁식사를 대접해주시기도 했다. 젊은 대학생 MK들의 발빠른 봉사가 넓은 캠퍼스의 구석구석을 달려 다니며 대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 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대회 기간 중 선교사님들을 울리게 하는, 뜨거운 감동을 주었던 잊을 수 없는 일들도 있었다. 선교사님들께 항공비를 주기위해 4만 불을 드린 헌신자의 이야기, 93세의 권사님의 참석,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기도로 중보하며 참석하신 헌신자, 봉사자들이 계셨다는 것이다.

선교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KWMC2016에 참석하고, 준비기간과 대회때 봉사하며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를 비롯 각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길을 계속하여 기도하시는 사무총장 고석희목사님과 섬기시던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속에 선교와 선교사를 향한 마음이 심장 안에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주님 오실 날까지 한국인들을 통한 한인선교가 계속되길 기도하고, 한인선교대회도 선교사님들을 굳게 세우는 선교사 부흥회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다.

미주 전역에서 선교운동을 벌여 30년 동안 이어온 KWMC가 한국에서 열리면 어떨까?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하면 선교사들이 참석 안 한다는 말도 했는데, 조국 땅에서 한다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쉽게 씌여진 시 - 윤동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샬롬 이스라엘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글 임도현 총무(이스라엘 사역네트워크)

하나님도 우리처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따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적성숙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높이는 것이 제일 먼저 할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좋았더라"고 외치시던 하나님! 멋진 피조의 세계를 만드시고 에덴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길 원하셨던 그 에덴동산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꿈 즉 비전은 에덴동산의 원형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시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율법, 조상, 율례, 약속, 절기, 그리스도, 말씀)을 주시며 에덴회복의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택된 목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불순종의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시기로 정하시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라는 순서를 바꾸시고 이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방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완성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① 마태복음 24:14 – 세계선교가 완성되면 세상 끝이 오리라.

② 마태복음 23:39 –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환영할 때에 다시 오신다.

세계 선교 보고에 의하면 빠르면 2020년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마태복음 12장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선교가 완성이 되어 마지막 대추수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남은 한 가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슈아여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라는 마태복음 23장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의 새벽이슬 같은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계선교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는 땅 끝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한국 땅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30년전부터 한사랑교단과 KIBI (온누리교회 이스라엘 기도팀)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그룹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비전은 함께 연합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IMN)를 만들고 현재는 70여개의 교회와 단체가 연합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학교(IMS)의 내용은

① 선택받는 이스라엘
② 고난 받는 이스라엘
③ 회복되는 이스라엘
④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⑤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5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한국교회가 헌신할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제1기 헤몬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27기 춘천 거성교회에서 주일오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등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학교의 특징은

①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인 민족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오늘 중동에 한 나라로 독립되었는데,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선민인가?
② 왜 그동안 선민으로써 그토록 참아내기 어려운 멸절과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는가?
③ 1948년에 독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인 섭리로 회복시켜 나가는가?
④ 지금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혼돈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⑤ 성전산,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사실일까, 상징적일까?
⑥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일에 이스라엘이 중심이라면 열방교회는 어떤 시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해야 할까?
⑦ 마지막 때, 동방의 나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체는 무엇일까?

위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철저히 성경적으로 해답을 구하면서 질문과 함께 토론식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회복학교를 수료한 교회와 개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형통입니다.

- 영적인 형통 –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살아나니 읽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 혼적인 형통 –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꿈을 알고 나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컴, IT,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음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현명한 리더가 됩니다.
- 육적인 형통 –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는 예배자, 범사에 감사로 만사가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역네트워크 모든 스텝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지구촌 끝까지 가서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헌신하기를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의 중심인 이스라엘 회복에 함께 동참해주시고 주일오후예배, 금요철야, 수요예배, 수련회, 청년부 모임에서 초청해주시면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샬롬.

(연락처 010-2785-8107 박노섬간사)



집세가 싼 동네

2015
55x40
watercolor on paper
collage

예술이란 무엇일까? 감각 속에서 길을 잃은 예술이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할까?
특히 모든 가치가 세련됨에 몰려 있는 지금 같은 시절에는 더욱더 그렇다.
어디로 사유의 방향을 잡고 감각과 지각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비약할 수 있을까?
그림은 나에게 삶을 들여다보는 뷰 파인더이다. 이제 그림을 통해 고통을 이해하고 슬픔과 웃음으로 잃어버린 감수성을 불러 일으켜 삶을 그대로 드러내 예전의 무모하지만 나름대로 순수했던 열기를 삶의 정면으로 향하게 하는 시선, 그 소박하고 따뜻한 시선들을 찾아내는 내 마음의 알전구를 반짝일 때이다. 작가노트

박 은 경 (화가, 미디어강사)
1971년 서울생
1995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1997년 세종대학교 사회교육원 애니메이션과 수료
1997년~2015 개인전 5회/ 부스전 6회/ 아트페어 2회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통일 3.0 : 복음통일과 순교적 사랑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4차 춘천모임(7월11일(월) 저녁7:15 주향교회/이병철목사)은
평화한국과 함께 세이레평화기도회(강사:허문영 박사)로 모였습니다.



강사 :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

① 통일1.0: 전쟁통일(1950년대 6.25전쟁)과 ② 통일 2.0: 대화통일(1970-2000년대, 7.4/6.15 공동선언)을 시도해보았으나 안되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③ 통일3.0: 복음통일(2010-2020년대, 십자가 순교적 사랑)로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복음통일은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하기에 기도해야 한다. 춘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를 하고 있는 주향교회의 터는 6.25때 인민군의 피가 많이 흘려진 곳이다. 이곳에서 복음통일기도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 춘천에서 6.25때 인민군을 3일간 막아냈기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춘천은 대한민국 자유를 지킨 중요한 도시인만큼 복음통일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도시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① 북한 위기: 김정은 체제 불안정화,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① 안보 위기: 미중 패권경쟁, 일중 세력경쟁, 영토분쟁, 군비경쟁, ② 경제 위기: 대외(유럽, 미국, 중국), 대내(양극화 청년실업)로 이 3개의 위기폭풍이 불어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님께 부르짖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우리민족의 살길이 열리게 된다.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 해야 한다.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국경을 접해있는 중국, 러시아와 영해를 접하고 있는 일본,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현재 미국, 중국이 서로 자신들 편하라고 하는데, 기본은 친하나님파 해야 한다.

재작년, 미국 방문 때 새벽에, 성경말씀 레위기 26장 3절~13절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 모든 나라의 국가목표는 세 가지로, ① 안보 ② 번영 ③ 위신이다. 이 성경구절을 새벽에 주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6절에 평화를 주고, 7절에 너희 원수를 쫓으시며, 8절에 너희 대적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안보"이다. 9절에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번영"이었다. 12절 ~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위신"이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었다. 매년 세이레 기도회로 21일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나 무서운 말씀은 14절 이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며 재앙의 말씀이 있다.

성결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음란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 성결, 경건, 정직 이 세 가지에 대해 한국교회는 예수피로 씻고 주님의 길 따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통일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1919년 3월 1일 후인 4월 13일)에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화는 "무궁화(The Rose of Sharon)"로, 국가는 "애국가"로 정했다. 이 때 모인 사람은 대통령 이승만 장로, 국회의장 손정도 목사, 내무장관 안창호 장로였으며, 장로 목사가 70% 가량으로 상해한인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담임목사도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헌의회(1948년 5월 31일, 중앙청)에서는 198명이 모였는데, 이중 크리스천은 48명이었다. 임시의장 이승만의 인도로 의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이윤영의원이 대표기도 요청을 받아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며 기도했는데, 기도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보면, ①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② 국민의 강령을 주시며 ③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다. 고려는 불교정신으로, 조선은 유교정신으로 만들어졌으나 대한민국은 기독교정신으로 세워졌다. 그러기에 통일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통일대한민국으로 세계선교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받은 마지막 사명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통일이 되면 영토는 영국 크기가 되고, 인구는 영국보다 2천만 더 많다. 해외동포까지 합치면 독일보다 더 큰 나라가 된다. G3의 나라가 된다.

1992년에는 남유다를 남한으로, 북이스라엘을 북한으로 보게 하셨다.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에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의롭다"는 무서운 말씀이 나온다.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배역한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을로 살아야 한다. 갑이 아니다. 영원한 을로 사신 주님처럼 복음통일은 을의 자세로 가야 한다. 늘 죄성이 있기에 갑이 되고 싶어 한다. 갑이 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진다. 주님은 겸손하게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말씀을 바꾸어 주셨다. 이사야 19장 23절-25절 말씀에 애굽은 미국, 앗수르는 중국이 되어, 홍해가 태평양이면 애굽은 미국 또는 일본이 될 수 있다. 말씀으로 보면, "그 날 21세기에 애굽(미국)에서 앗수르(중국)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앗수르(중국사람)은 애굽(미국)으로 가겠고, 애굽(미국사람)은 앗수로(중국)으로 갈 것이며 애굽(미국사람)이 앗수르 (중국사람)과 함께 3차 세계 대전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 날 21세기에 이스라엘(통일한국)이 애굽(미국)과 앗수르(중국)과 더불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의 근원이 되리니, 이는 만국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애굽(청교도들이 만든 미국)이여 앗수르(14억 숫자 가진 중국사람들)이여 무엇보다도 나의 기업 나의 선교를 감당할 이스라엘(통일한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통일대한민국이 되어 미국과 중국과 함께 힌두교와 중동을 복음화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가기 전에 북한 2500만 동포들을 복음화 하여 저들의 강인한 정신과 우리와 결합될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통일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영성대국(Shalom Coreana)이며, 복음통일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 질 것이다.

취재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시대적 사명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5차 춘천모임(7월11일(월) 저녁7:15 주항교회/이병철목사)에서 선포된 말씀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강사 : 송원근목사(도시너머 자연빛교회)

사도행전 20:22~24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 하심 같이, 우리는 사도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보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사도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은 유대민족주의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비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처럼, 우리 비전은 땅 끝까지 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도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내가 내 민족을 보면 괴롭고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롬9:1-3) 사도바울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청년들과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한 청년이 사도바울은 왜 사십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을 맞았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답을 찾다가 발견하고 청년들과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고 다니던 사도바울이 왜 맞았을까?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로마시민권을 꺼내면 안 맞을텐데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회당에 못 들어가니까, 끝까지 유대인으로 남아 있으려고 들어가서 사십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을 맞은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하니까 유대인으로 또 다시 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내 민족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알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아프리카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내 민족입니다. 미국사람이 북한을 내 민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형제이고 동족이며 내 민족입니다. 북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하고 같은 피,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북을 오갔던 8.3% 어르신이 아직 남한에 살고 있고, 3만여 북한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돕기 위해 이방인 교회를 돌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데, 선지자까지 와서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도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하며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순간도 자기 민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남한의 우리교회는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 민족을 품고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죽어가는 땅을 살려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여 통일한국의 날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는 모이면 100% 남한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남한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북통일 될 때 하나 되어 만나게 해달라고, 남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교회에서도 북한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1년이 지나도 북한, 통일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교회에 있고 싶지 않고 조중동 지역에 가서 북한 탈북자 돕는 사역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배 끝나고 하는 대화가 아파트 값, 우리 자녀 학원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체제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민족에 대한 관심도 이야기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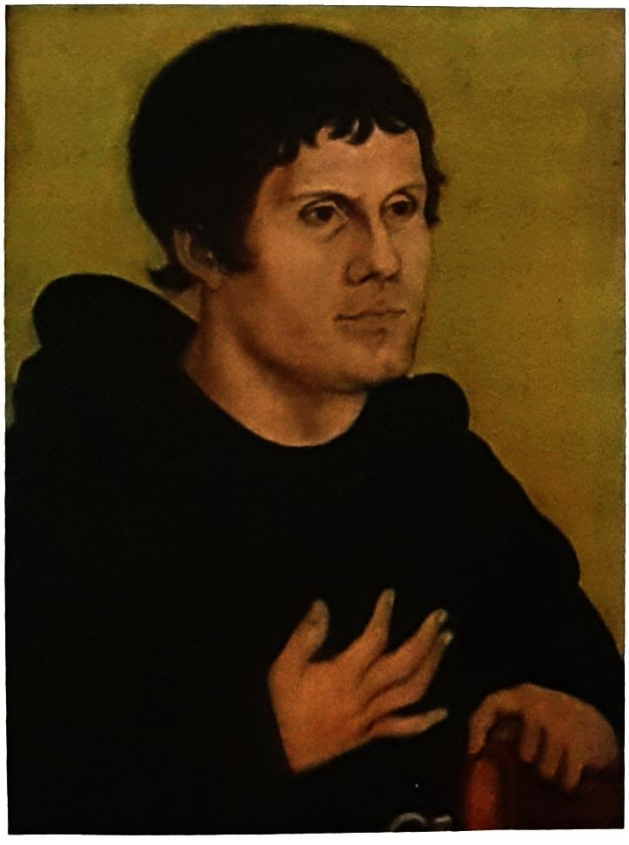
북한 지하교회 하시던 분이 하는 말이 오케스트라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감격해야 하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하교회에서는 찬송도 크게 못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북한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일목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탈북자가 없으니 통일목회 안합니다. 우리는 아직 거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교회 유지하기가 힘들고, 우리교회가 전도하고 이웃사랑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바울을 본받읍시다. 자기 민족을 향한 사도바울이 품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비전 사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통일목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통일목회는 북한을 가슴에 품으면 됩니다. 언제가 통일 되었을 때 모든 사회가 관심이 없어도 교회는 우리 북한 사람 우리 민족을 잊지 않았지 라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한국 7만교회가 모두 통일 목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일한반도를 위해 사역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취재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칭의 없이 성화 이루려한 루터

글 김현배 목사 (베를린 비전교회)



▲ 마르틴 루터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문한 루터

1505년 7월 2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뢰로 인해 슈토테른하임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루터는 2주 지난 7월 17일에 성 어거스틴 수도원(Augustinerkloster)으로 들어갔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라고도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세워진 수도원이다.

에르푸르트에는 당시 약 2000 여개의 많은 수도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루터가 입문한 어거스틴 수도원은 규율이 엄격하고 학구적이며 개혁의식이 일어나고 있던 곳이었다. 또한 어느 수도원보다도 더 엄격한 계율과 철저한 수도 생활을 요구했다.

이러한 수도원에서 루터는 허름한 의복과 소식, 기도와 명상, 낮 시간의 노동, 예배, 찬양, 미사, 고해성사, 매일의 의무,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 등에 관 규칙들을 모두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기독교 경건의 가

장 고상한 형태인 수도원 생활에서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수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의 수도원 서약은 제2의 세례이자 새로운 출발이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상세히 규정해 놓은 원칙을 정확히 가슴에 새겼으며, 수도원장이 그의 뺨 위에 입 맞추는 의식을 끝으로 1년간의 수습 수도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루터는 수도원 입교를 축하하는 행사에서 머리 중앙부를 삭발했고, 검은색의 수도원 복장을 착용했다. 수많은 수도원 규칙들을 기억하면서 루터는 날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시편 묵상, 성가, 독서, 미사, 하루 7번의 기도회 등을 마치고 밤늦게 취침에 들어갔다.

특별히 루터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수도원에서 루터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교육을 잘 받아 나갔고, 성경을 읽었다. 또한 그는 기도문도 열심히 암송했고, 자기 몸에서 귀신들을 축출하려는 소망으로 금식도 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으며, 불을 지피지 않은 방의 추위도 견뎌 냈다. 그는 매일 정절, 청빈, 순종, 금식, 철야, 그리고 금욕적 극기까지도 하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갖은 노력과 애를 썼다. 그의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선행이 쌓여가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했다. 만약에 수도사 훈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루터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정도로 엄격한 수련을 쌓았다. 당시 루터는 얼마나 수행에 열심이었는지 만성 위장병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여러 수도사들 중 가장 열심 있는 수도사였다.

이처럼 루터는 자신이 구원 받는 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고행이라도 실천했다. 루터가 그처럼 몸부림치며 자신의 죄를 보상해 보려고 했지만 이 모든 수고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인간의 구원문제에 대해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루터는 수도원의 엄격한 계율 속에서 기도와 찬송, 말씀묵상,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루터의 영혼에 대한 고뇌는 수도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몸부림은 더욱 심했다. 그는 불의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셨다. 그동안의 충분한 공로와 충분히 쌓은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루터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였다. 그는 훗날에 깨닫게 되지만 당시에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에 없는 가르침과 관행을 겹겹이 쌓아 올리며 복음이라는 교회의 참된 보화를 은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는 수도사의 과정을 마쳤다. 루터는 1505년부터 1511년까지 이곳에서 수도사로 머무른 것으로 유명하지만 젊은 루터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 매우 고뇌하게 했던 현장이었다.

요한 폰 슈타우피츠와 루터의 만남

1506년 4월 3일, 수도원에 들어온 지 9개월이 지난 후 루터는 요한 폰 슈타우피츠 (Johann Von Staupitz, 약 1468-1524) 원장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슈타우피츠는 중세 수도회의 최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슈타우피츠에게 자신의 크고 작은 죄를 모조리 고했다. 슈타우피츠는 일일이 열거하고 고백하고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죄보다도 더 근본



▲ 루터의 영적 스승 요한 폰 슈타우피츠

적으로 잘못된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슈타우피츠는 루터의 관심을 개인적인 죄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돌려놓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죄에 대한 고민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 후 슈타우비츠는 루터에게 성경 연구에 매진하도록 인도하였고 특히 성경의 원전으로 씨름하게 하였다. 그리고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권유했다. 루터에게 정식으로 높은 수준의 신학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루터는 이 수도원 생활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을접하게 되었는데, 후일 루터 신학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론과 성도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슈타우피츠는 루터의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로서 영적 스승이었고 사랑으로 길을 인도해 준 멘토 이기도 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위대한 루터에게는 자신의 영적 스승인 요한 폰 슈타우피츠가 있었다.

루터가 사제 서품 받은 에르푸르트 대성당

수도사 과정을 마친 루터는 드디어 사제가 되었다. 에르푸르트 돔이라 불리어지는 성 마리엔 돔(Marien Dom)은 1278년부터 1400년까지 120여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위엄있게 에르푸르트의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뾰쪽한 첨탑을 자랑하는 독일 고딕 양식의 걸작품으로 에르푸르트의 랜드마크다.



▲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은 에르푸르트 대성당

건물 전면에 있는 70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대성당 내부는 숨이 막히도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고딕양식의 제단이 보인다. 이곳 대성당에서 루터는 1507년 2월 27일 부제로, 그해 4월 4일 가톨릭 신부로 서품을 받았다. 신부가 된 사람은 이제 성만찬을 집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미사의 신비가 신부 루터를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사제 서품을 받은 후 5월 2일에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 교회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였다. 그는 교회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한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루



▲ 어거스틴 수도원 내부 모습



▲ 루터가 수도사로 들어간 어거스틴 수도원

터는 미사를 집전하면서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죄인이 감히 입을 열어 말을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났다. 루터는 괴로웠고 공포에 휩싸였다.

장래 종교개혁자로서 여러 고뇌의 과정을 거치는 루터

젊은 루터가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도시는 수도원으로 가득한 에르푸르트이다. 이곳에서 루터는 장래 종교개혁자로서 다듬어지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서의 엄격한 생활은 22세 루터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 매우 고뇌하게 했던 현장이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 스승 요한 폰 슈타우피츠와 만남을 통해서 신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지 2년 뒤, 그의 나이 24세 되었을 때 에르푸르트 대성당에서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된 일은 파격적이었다. 또한 신부로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신학박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장래 종교개혁자 루터는 준비되어 갔다. 루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놀라울 뿐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는 신부 루터

루터는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엄격한 규율 속에서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시켰다.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로서 미사를 집전했다. 하지만 루터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으며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 루터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몰랐다.

또한 인간이 행한 최상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16세기 루터의 치명적인 영적 문제는 계속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면서 칭의 없이 성화를 이루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18세기 존 웨슬리 역시 그가 회심 전에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신앙의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루터는 인간의 구원은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깨닫지 못하는데 있다. 루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실히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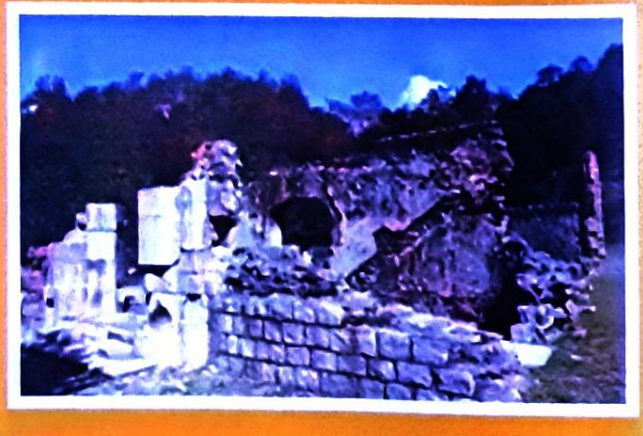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시나요?



7월이 되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다. 곧 휴가철이 오면 강원도는 또 만원일 것이다. 한국 사람치고 강원도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여행, 휴식, 관광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람들이 강원도를 선호하는 데는 산자수명(山紫水明 : 산 빛이 곱고 강물이 맑다는 뜻으로, 산수(山水)가 아름다움을 이르는 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바다 좋고 거기다 인심까지 좋은 곳,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까?

금번 여름 휴가철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 볼만한 경치도 좋고 역사적 의미도 있고 나아가 신앙관련 유적지를 추천해 달라는 춘천성시 매거진 편집부의 부탁에 허락을 하고 급한 일을 부랴부랴 처리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며칠간 고민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졌다. 더는 피할 수 없어 단단히 맘을 먹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생각하고 또 하고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강원도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께끗, 휴식, 전쟁"이라는 어느 신문사의 설문조사가 떠올랐다. 이들 이미지를 다 충족하는 신앙유적은 어디일까 하고 고민하다 "철원 제일교회터"와 "고성 화진포성" 이들 두 곳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철원군·읍 관전리 100-2번지에 위치한 철원제일교회는 원래 지상 3층 지하 1층의 웅장한 석조건물이었지만 6 · 25전쟁 당시 폭격으로 전면 출입

구, 벽과 바닥 일부의 잔해만 남아 있었다. 1905년 웰번(Arthur G. Welbon) 선교사에 의해 장로교회로 시작되었지만 선교지 분할 협정에 의해 1907년 감리교회로 되었다. 철원제일교회는 일제 강점기에 강원지역에서 초기에 만세운동에 동참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독립운동과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 또 해방 직후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있었으나 애국청년단을 조직하여 반공 유격전을 펼칠 정도로 일제의 핍박과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면서 신앙과 교회를 지켜왔던 교회였다. 6·25 당시에는 북한군의 병동으로 사용되고 교회 지하실에서는 양민 학살이 행해졌다고 전해진다. 교회가 지금의 상태가 된 것은 전쟁 당시 북한 병력이 숨어 있다고 하여 미 연합군의 폭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교회 터는 2002년 개신교 건물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근대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재 23호로 지정되었다. 2013년 10월 29일 철원제일교회 복원 기념예배당 봉헌감사예배를 드렸다.

화진포성(花津浦城)은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화진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는 별장으로 일명 '김일성 별장' 으로 불린다. 이 화진포 성이 세워진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원산에 있는 외국인 휴양촌을 화진포로 강제 이주시켰다. 1938년 독일 망명 건축가 웨버(H. Weber)에 의하여 이 건물이 건립되어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 해안절벽 위 송림 속에 우아하게 세워진 이곳은 1948년 이후 공산



당 귀빈 휴양소로 사용되었고 그해 여름에 김일성이 아내 김정숙 아들 김정일, 딸 김경희와 함께 묵고 간 적이 있어 '김일성 별장'으로 유명해졌다. 김정일이 당시 6살로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지하 1층·지상 2층의 석조 건물로 38선 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곳은 6·25전쟁으로 한국 땅이 되어, 1964년 육군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원형대로 재건축하였으며, 1995년에 개·보수하여 장병들의 휴양 시설로 사용하였다. 현재 내부에 6·25전쟁과 북한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약 1km 거리에 있는 이승만 별장·이기붕 별장과 함께 역사 안보 전시관을 이루고 있다.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화진포 해수욕장은 1.7km의 하얀 백사장을 가진 최북단의 조용한 해수욕장이다. 앞에 펼쳐진 바위섬이 거북이 모양의 '금구도'이다. 배를 타고 들어가 해초나 전복을 딸 수 있으며, 가을이면 섬의 대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황금빛 섬이 된다고 한다.

글 노성호 교수(한림성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PyeongChang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사회적 책임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캐드버리' 초콜릿의 고민

오늘날 미국의 '허쉬'와 함께 세계적인 양대 초콜릿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캐드버리'(Cadbury)는 1824년 영국의 퀘이커교도 존 캐드버리에 의해 시작되었다. 캐드버리는 처음에 차와 커피 무역을 주 사업으로 하였으나 열대 식물인 코코아에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한 후 코코아 음료, 초콜릿 가공식품 등으로 사업의 영역을 넓혔다.

존 캐드버리의 아들 조지 캐드버리는 1861년 아버지의 사업체를 이어받아 코코아 · 초콜릿 제조회사인 캐드버리 브러더스사로 회사를 크게 번창시켰다. 사회개혁가이기도 한 그는 작업환경의 개선, 주택공급, 새로운 도시계획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 1879년 조지 캐드버리는 산업도시인 버밍엄 근교의 본빌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도시를 건설한다. 본빌에서 캐드버리는 세계 최초로 민간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작업환경을 당대 최고의 수준으로 개선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이 기업도시의 주택들은 노동자 계급의 주택치고는 특이하게 넓은 정원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캐드버리의 실험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으나 19세기 후반의 근로여건이 열악하기 그지 없었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이러한 노력은 혁명적 발상이었다. 캐드버리는 기업이 존재 이유가 단지 경영진의 이익만이 아닌 같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그 책임을 다했다. 캐드버리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이웃과의 '연계 번영'(linked prosperity)을 실천하는 벤앤제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할 때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환경 보호, 사회적기업 지원, 공익마케팅과 같이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가장 잘 한 기업으로 벤앤제리를 꼽는다. 미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벤앤제리는 1978년 벤 코헨(Ben Cohen)과 제리 그린필드(Jerry Greenfield)에 의해 버몬트주의 허름한 주유소를 개조해 시작 되었다. 사업을 시작한지 3년만에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세계 최고의 아이스크림' 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벤앤제리에가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맛있는 아이크스림 때문이 아니라 벤앤제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업 철학 때문이다. 벤앤제리는 1988년 회사의 사명을 담은 미션 성명 (mission statement)를 발표했다. 이 미션성명은 회사의 이익을 추구를 넘어 주변의 지역사회, 소비자, 환경, 사회문제를 관심을 갖고 이들 이해관계자들과 동반 성장해 나가는 '연계번영' (linked prosperity)이라는 새로운 기업 개념을 개발하여 제품, 사회, 경제에 관한 비전을 선포했다.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기업

벤앤제리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회사가 속한 지역인 버몬트 주에서 만들어 진다. 이런 벤앤제리의 원칙은 1980년대 한때 축산 농가들이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유 가격이 급락 했을 때도 예외 없이 지켜졌다. 물론 벤앤제리가 축산 농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한 것은 아니었다. 버몬트 주 축산 농가들에게 안전성이 증명 되지 않은 유전자가 조작된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했다. 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원료로 만든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제품 사명' 을 지키기 위해서다.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벤앤제리가 높은 가격에 우유를 사주기 때문에 우유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다. 벤앤제리가 사회사명, 제품사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벤앤제리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되었고 매출은 늘고 영업 이익이 늘어났다. 경제사명, 제품사명, 사회사명의 1석 3조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된 것이다.

평창올림픽과 사회적 책임

캐드버리와 밴엔제리는 기업이 경제 영역에서 사회의 아픔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 할 수는 없을까? 강원도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도의 풀뿌리 경제조직들이 얼마만큼 연계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주민 소득 창출과 연동하고,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원도의 경제구조상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고민해 봐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30여 년 전부터 새로운 흐름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육성되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으며 환경 · 사회 문제에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ility Investment) 기법이 나와 투자를 통한 사회 참여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뿐 아니라 선진국 소비자와 후진국 생산자 간의 공정거래의 다리를 놓는 '공정무역'(Fair Trade),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 지구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각 영역의 처음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거나 기독교정신이 깊숙이 배어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적 경제는 사실상 1970년대 이후 강원도 원주에 태동 하였다. 그만큼 사회적 경제는 강원도의 기독인들에게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 과제일뿐 아니라 14세기 후반 강원도 정도 이래 갖는 강원도의 최대 이벤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기독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열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삭줍기' 처럼 나눔과 배려의 넉넉한 마음으로 경제를 바라보자.

글 전병길 박사(통일과 나눔 사무국장)

여름 독서

속대발광욕대규라는 옛사람의 싯구를 들어 보셨나요?
여름날 폭염 속에 허리띠를 두른 채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있으니 땀이 비오듯이 흐르구요, 가만있으려니까 그만 발광이 나서 으아아하고 고함을 지르고 싶다라는 얘깁니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무더위로 으아아하고 고함을 지르고 싶을 정도의 더위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은 커녕 흔한 선풍기조차 없이 부채 하나로 고스란히 더위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옛 선인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났을까라고 말입니다.

박제가가 어린 시절 글씨 연습을 할 때 일입니다.
더위를 견디다 못해 옷을 활활 벗고 분판 위로 올라가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전신으로 땀이 줄줄 흘러 배꼽에도 땀이 고이고 무릎 아래에도 흥건히 고였습니다.
박제가는 붓에 고인 땀을 찍어 분판 위에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마다 공책을 만들어 새겨야 할 대목을 베껴 적었습니다.
후한의 고봉이라는 사람은 한여름 아내가 장보러 간 사이에 마당에 널어놓은 겉보리가 소나기에 다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서란 옛 선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전부였고, 삶의 의미 자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하루종일 책을 안고 잠자는 태고적의 한가로움을 누릴 수는 없다 해도, 휴가의 여행길에서, 또는 집안에서 맞바람이 들게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독서삼매에 빠져드는 여유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정예현 보도국장(강원CBS)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예사랑교회 (홍요셉목사, 조영춘목사)



Q 구 사랑의교회와 구 예광교회가 하나로 통합하여 현재 예사랑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두 교회가 통합하여 한 교회가 되었는지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춘 목사 8명의 목회자가 매 주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목회자모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교제해 오다 보니 서로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고 서로 어려움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연합 기도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응답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통합이 되기 전에 먼저 제자들교회(정선문목사)의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학곡리로 이전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꿈이있는교회(김은선목사)가 고은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 곳에 간절히 갈 곳을 찾던 한울섬김교회가(노에녹목사) 들어오게 되는 거듭되는 기도응답의 역사를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저도 예광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

도제목을 내 놓았고, 홍요셉목사님도 상가에서 벗어나 남은 목회를 단독 건물에서 하고 싶은 기도제목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함께 한 동역자들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감동을 받고 거듭 두 교회의 통합을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넘어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열쇠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징조를 보여 달라고 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큐티 중에 요나서의 말씀으로, 홍요셉 목사님은 금식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더욱 동료목사님들의 마음 깊은 격려가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많은 분들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홍요셉 목사 일단 두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2015년 12월초 목회자 기도회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조목사님에게 진정어린 조언을 하면서 출발하게 된 것이 맞을 겁니다. 조목사님 부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90% 정도 확신을 하고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건 제 입장에서는 조목사님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후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깐요. 솔직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 내심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지만 기도회 목회자들도 기도해 볼 것을 간곡히 권하셔서 드디어 1월 초에 우리 부부가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아니 마이너스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지루하게 3일이 다 되어가던 마지막 날 밤 10시. 이제 금식이 끝나려면 2시간 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기도하는 굴에서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평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3가지 방법 중 가장 흔하지 않은 세 번째 방법 즉 권세 있는 큰 음성으로 이것이 그동안의 저와 우리교회의 오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방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는 그때서야 자신은 첫날부터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매일 확인시켜 주셨다고, 3일 동안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내 결정에 영향을 끼칠까봐서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두 사람은 마음에 일치를 보고서야 그 다음 날 아침 함께 춘천으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Q 두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려웠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조영춘 목사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 자신이었지요. 그토록 갈망하던 교회의 준공 검사가 완료되어

"이제야말로 목회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할 시점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제일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울며 말리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떠나겠다고 말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저려옵니다. 성도들이 건축 빚이 문제라면 자신들의 집이라도 팔아서 감당하겠으니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할 때에 그래도 주님께서 이 상황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홍요셉 목사 통합이라는 대원칙은 있어도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상호 소통을 하면서 하나 하나 진행을 해 나가야 하니깐 그런 점들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해도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게 마련이지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계속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라 예민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제로 상태로 돌릴까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만큼 하나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내 주장이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요구나 입장을 생각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두 교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나 섭리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춘 목사 두 교회의 통합은 저는 전적인 하나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하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통일 연습'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두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도 했고, 영적싸움도 경험했습니다. 외람되지만 내가 져야하는 작은 십자가도 경험했습니다. 내려놓으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작은 오해도 모든 문제를 뒤집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절감했습니다. 더욱이 비전과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정이나 명예 문제를 내려놓는 것도 큰 포기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요셉 목사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그 은혜가 아니면 통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빌 2:5-8 말씀을 실제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모습 앞에 저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분지일이나마 이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두 교회

의 통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조목사님의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아마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목사님에게나 성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몇 단계 성숙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3개월 만에 배운 것 같았으니까요. 하하하~

Q 두 교회가 통합으로 앞으로의 사역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조영춘 목사 저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로 통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밝혀진 이후에도 여러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로 문제를 풀어 올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동역자들이 더욱 형제애로 하나가 되어 격려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중재자로, 위로자로, 협력자로 함께 하는 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예사랑교회의 선교 목사로서 사역하게 됩니다. 예사랑교회 소속을 두면서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돕고, 더 나아가 춘천 성시화의 꿈을 이뤄 가는데,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 동성애, 이슬람 문제, 이단 사이비 등 –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나, 앞으로 조국의 미래를 대비하여 통일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일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 교회와 선교사 및 선교지를 연결하는 사역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개인적이고, 개교회적인 사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아무래도 연합 사역에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홍요셉 목사 저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우선 두 교회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된 예사랑교회가 건강하게 서 가야 앞으로 무슨 사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사랑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목사이신 조목사님을 재정적으로나 기도로 성실하게 후원하는 사역을 해야겠지요. 앞으로 얼마동안은 통합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집중적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두 교회를 통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한걸음씩 나가고자 합니다. 예사랑교회는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3년 전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이제 조목사님을 파송했으니, 앞으로 18명이 더 남은 셈이지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기독교 고등학교를 춘천 땅에 꼭 설립하고 싶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서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을 두 날개 프로세스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섬기는 사역(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이병철기자 kokkos21@gmail.com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이음교회'

이음 카페, 이음도서관



▲ 동네작은도서관 이음

필자가 석사동 먹자골목에서 화실생활을 한 것은 1996년부터였다. 그 당시 지하건물에서 지냈는데 운영난으로 2년 조금 지나 나왔다. 3년여 만에 다시 다른 1층 건물로 돌아왔는데 그 지하는 교회로 변해 있었다. 몇 번 정도 교회가 들어섰던 것 같다.

스쿠터 운행을 시작하게 된 3년 전쯤 골목길을 산책 삼아 다니다가 아주 조그만 커피숍이 눈에 띄었더랬다. 동네카페 '이음'. 이름이 참 정겹고 편하게 다가왔다. 들어가 보니 젊은 전도사가 맞이해 주었다. 당연히 궁금증에 여러 가지 물어본 중에 20년 전 필자의 그 지하 화실 자리가 '이음교회'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1층에 커피숍을 운영한 것이다. 그 전도사는 올해 목사안수를 받고 매우 신선하고 독특한 목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얼마 후 지하의 이음교회를 카페 건너 1층 상가로 이전하고 현재의 예배당 겸 동네 도서관을 만들었다.

웬만한 대형교회에 카페가 있는 경우는 많다. 대개 평신도 직분의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편이다. 그러나 목사가 직접 바리스타로서 섬기는 일은 아마 이 이음카페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골목에 담장의 장미꽃 같은 성령의 기운이 퍼져가고 있는 중이다. 이 특별한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김푸른 목사님을 찾아보았다.

Q 이음이라는 이름이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이름을 정하기까지 특별한 동기나 사연이 있으신지요?

A 이음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공동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소리(異音),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단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시대인 줄 착각하며 지냅니다. 21세기 통신수단인 스마트폰, 유비쿼터스가 생활화 된 이 시대를 소통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소통이 잘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통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단절된 이 세상을 향해 '이음' 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음교회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부자(父子)목사가 함께 섬기는 것인데, 부친은 그리스도의 교회, 김 목사는 감리교 교단으로 서로 교단이 다름에도 협동사역을 하고 있다. 대개 교회세습 등 목회자가족으로 인한 문제로 우려를 갖지만 이음은 세습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것이다. 이는 교단을 초월한 매우 신선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부친 김병승 목사(60세)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32년의 목회를 돌아보는 쉼의 시간을 갖고, 또 앞으로의 남겨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를 사임하고, 이음교회의 협동목사로 사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음교회가 속한 동네(다가구주택지역)의 특성상 5,60대 이상의 장년, 노년층이 많은데 이들을 담당할 수 있는 시니어 담당 목회자가 생긴 것. 이음교회는 두 명의 목회자가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내일' 을 꿈꾸고 있다.

김푸른 목사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목회지 이동에 따라 경북 안동, 부산, 서울, 전남 해남, 강원 강릉 등. 전국을 돌며(?) 자라왔다. 2012년 여름, 서울에서 부교역자(수련목회자)로 훈련을 받으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가정과 사역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이시고 결단을 요구하셨다고. 바로, 춘천이라는 곳에서의 개척.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연고지 하나 없는, 낯선 춘천으로 오게 되었다.



▲ 김푸른 목사 (이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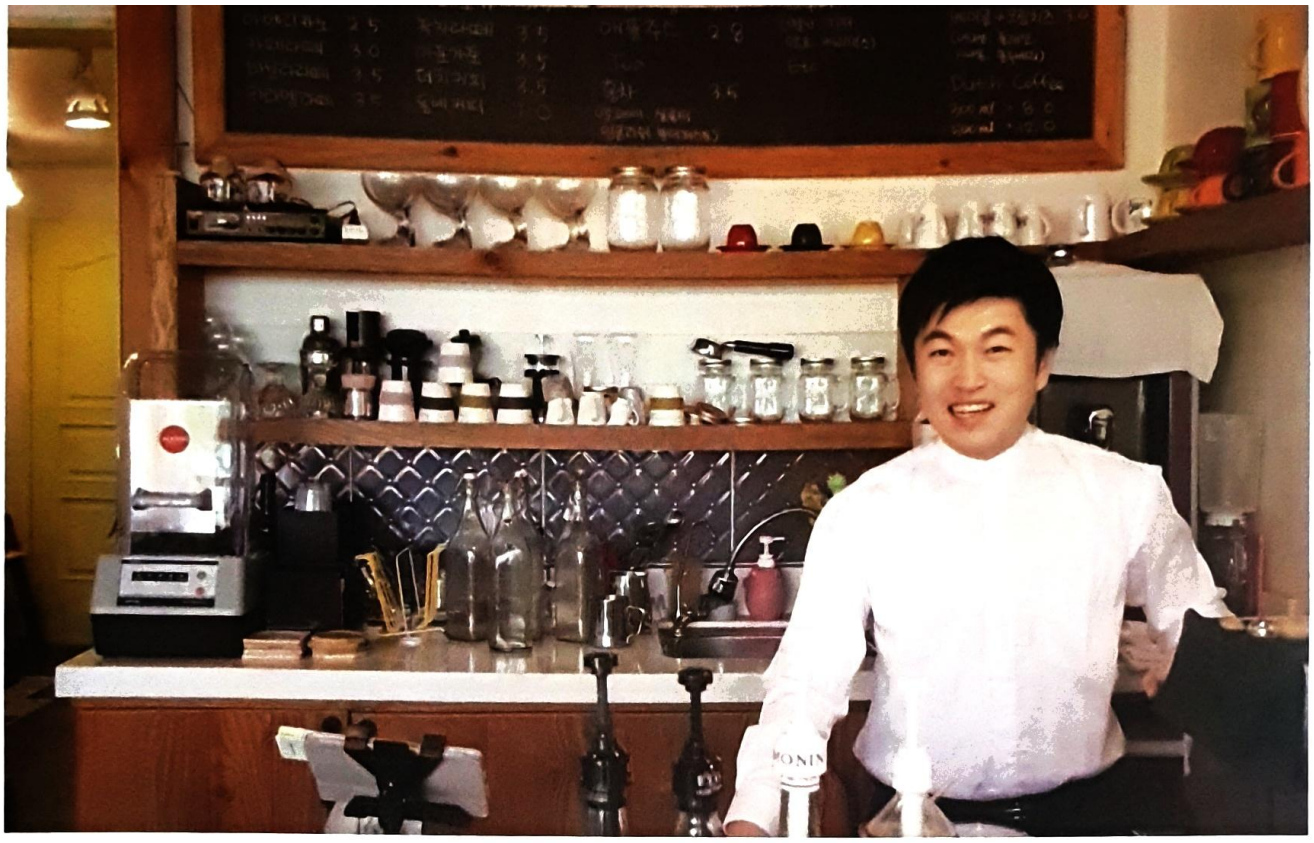


Q 목사님의 춘천에 대한 인상, 그리고 목회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A 제게 있어 춘천의 첫 인상은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처럼, 사방이 막힌 채 하늘만 열려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아는 곳도 하나 없는, 갈 곳도 없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철저하게 고립된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였지요. 더군다나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가진 이 곳 춘천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싶은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저를 안으시고 이곳 까지 이르게 하신 '안으시는 하나님' (신1:31)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Q 커피숍 운영과 함께 하는 목회라는 독특한 사역에 대한 동기와 과정 및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그저 커피가 좋아서 신대원을 졸업 후, 1년 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목회를 한다면 커피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요.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제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준비했던 것을 아시던 한 분께서 이 소식을 듣곤 커피머신을 헌물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강대상도 준비하지 못했었던 시기였는데, 카페교회가 아닌 상가 지하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노라 사양하였지만 언젠간 쓰지 않겠냐며 보내주셔서 교회 한 켠에 두고 사용하였지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석사동의 주택가에 거주한지 2년 즈음 됐을 무렵, 제가 전도 할 때마다 대부분 전도를 당해(?)본적도 없는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지요. 이들에게 상가 지하의 교회는 부담요소임을 느끼며,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 이음교회의 설립 2주년을 맞아 전도 거점 지역에 선교 목적의 '동네카페 이음' 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는 카페에 마련된 세미나실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착한 소비를 권장하며 카페의 수익금의 일부(평균 7%)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에 사용하였지요.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전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와 전도 대상자 간의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닌, 동네 이웃과 이웃으로서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하였지요.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의 1/3은 신앙상담을 하고 싶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기엔 쑥스럽고 민망한 질문들과 고민들을 스스럼없이 나누며, 환해진 얼굴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카페가 다양하게 쓰임 받는 도구임에 감사가 넘칩니다. 또한 전도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 주는 거니까 받으라며 거들기까지 하시니 전도가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교회학교가 두 배로 부흥하여 아이들이 20명이 넘어서면서부터 카페의 세미나실이 비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지하의 교회로 데려갈 수도 없고, 때마침 카페의 맞은편 술집이었던 상가가 1년 넘게 비어있었음이 생각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이 지역에 필요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동네 아이들을 위한 '동네작은도서관 이음'을 설립(춘천시 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여, 주중에는 도서관으로, 주일에는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이전한 뒤 교회 학교 아이들은 더욱 늘어나 현재 35명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에 거주한지 만 4년차이지만, 신기하고도 감사하게 도시 속의 동네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목회자이지만 시골마을의 목회자처럼, 동네 이웃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드리며 춘천토박이들의 문의에 답을 하고, 누군가를 소개하는 이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신비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음의 사역 역시 성시화의 기본이념의 하나로 모두가 동감, 동참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정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로 드려지길 기도한다.

취재 김춘배 기자 beller@hanmail.net

바른나라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정형만 대표를 만나다

지난 7월 21일(목) 강원도청이 WIEF(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를 전면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WIEF 유치를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도청 앞 기자회견과 시위, 서명운동 등에 앞장섰던 "바른나라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동역자들은 도청의 발표에 매우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애썼던 시간들이 보람있는 결과를 가져와서 서로 기쁨의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른나라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이자, 내과의원 원장이신 정형만대표를 만나 그간의 활동 이야기와 앞으로의 비전 등을 들어보고자 병원을 찾아뵈었습니다.

Q 현재의 "바른나라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아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 단체의 성격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A 단체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슬람에 대하여 연구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이 좋은 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악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힘쓰는 단체입니다. 지자체 행정관료들이 올바른 정책을 세우도록 돕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언론기관들이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격려하거나 모니터링(monitoring)하기 위해서 생긴 순수한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추진해 온 사역은, 우리나라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하여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협력하고 IT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카페, 밴드 단체카톡과 페이스북 이나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슬람권의 소식과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인터넷 선교사역인 셈입니다. 춘천에서는 이슬람을 바로 알기 위한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에 갖고 있습니다.

사회 현장사역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는 관공서나 공공장소 등에서 할랄산업과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및 무슬림인구 증가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하여 집회 기자회견 피켓시위 등을 2015.11.03.부터 2016년 7월 22일 까지 정부종합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 강원도청 앞, 서울역 광장 앞, 제주도청 앞 등에서 10여 차례 하였습니다. 강원도 각 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이슬람의 실상을 알리는 책자와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의 위험성에 관한 공분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 교육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에 이슬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최근에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WIEF(세계 이슬람경제포럼)가 취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A 우리의 노력이나 힘은 미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춘천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 또 본부 동역자들과 시민들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과 서명에 참여해주신 성도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타 도시에서도 협력하기 위해 방문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이슬람 과격단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로부터 강원도를 지켜 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본부에서 보낸 공문과 서명 등을 잘 수렴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도지사님과 담당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가 담당해야 할 몫은 구심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 동역자들과 구심점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기자회견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Q "바른나라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기도의 제목이 궁금합니다.

A 이슬람을 바로 알기 위한 교회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대학의 기독학생회 선교단체나 동아리, 기독교수회 등도 관심을 갖고서 이슬람의 위험성과 한국의 이슬람화 실상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의 개교회 중심주의와 한국의 이슬람화 실상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함도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교회들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 이슬람화 실상을 알리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또 각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교육부서에도 신실한 기독인들이 진출해서 왜곡되고 미화된 교과서에 실림 이슬람에 관한 내용들도 반드시 올바르게 기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도권 학교에서 이슬람에 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교회 중심주의나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식 있는 기독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각 교회의 교회학교부터 자라나는 초.중.고 및 청년대학부 학생들에게 이슬람에 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마인드(mind)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이슬람화에 열을 올리기 위해 이슬람 미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H대 L교수, M대 C교수 등이 다메석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되어 위대한 복음전도자가 되었듯이 H대 L교수, M대 C교수 등이 주님을 만나고, 이슬람의 허상을 깨달아 복음전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이집트 이맘 출신 마크 A. 가브리엘이나 이집트인 설교가 자카리아 보트로스처럼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Q 말씀을 나누다 보니 대표님의 신앙적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나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과 봉사로 섬기고 계신지요?

A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1981년 3월 대학 1학년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교 시절 카톨릭 미션스쿨에 다녔는데 신부님들을 통한 종교 수업과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차츰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신실한 삶과 그들의 전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및 여러 고난 등이 저를 일찍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교회에서 성가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피택장로이며 11월 임직예정입니다.

Q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셨던 인물이나 책, 성경구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첫째, 대학시절 믿음의 선배님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들의 삶의 모습 통해서 혈육보다 더 친밀한 뜨거운 사랑의 인간관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대학시절 다녔던 담임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영향을 주었던 성경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17),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6) 입니다.

Q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와 또 가장 보람이 되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이셨나요?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간증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불신 가정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옛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모르고서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도시락을 없이 학교에 등교했던 적도 많았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문배달 및 아르바이트, 농사일 돕기 등을 하면서 공부하였고, 고교시절 고2학년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교를 마쳤습니다. 대학시절에도 물론 학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 지면에서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대학 학자금 때문에 농촌의 소(cow)나 전답(田畓)을 팔지는 않았습

니다. 사실 경제적인 난관이나 기타 다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었으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1981년) 초신자 시절부터 새벽기도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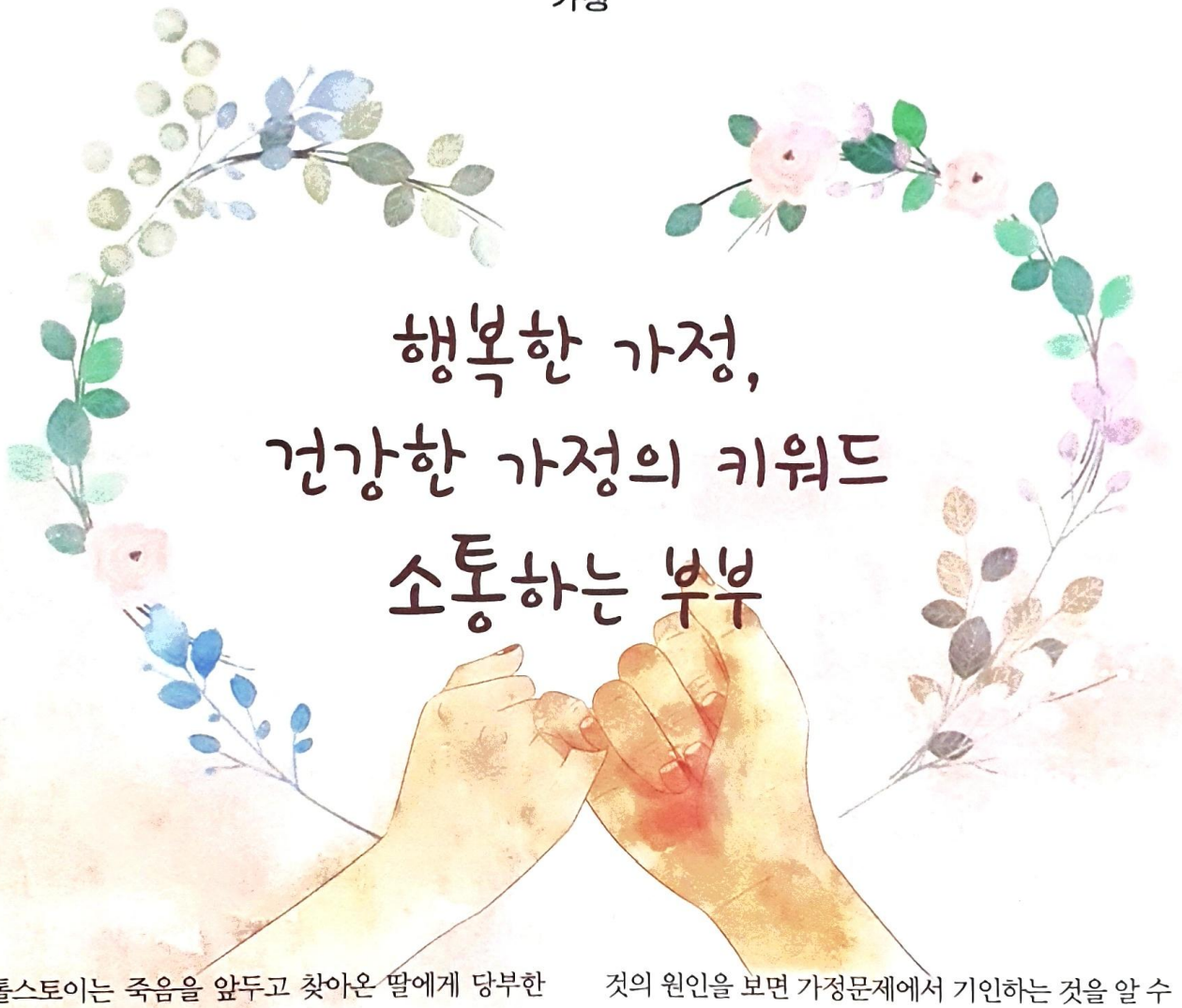
신의 핏줄인 아버지 어머니 및 육신의 형제자매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할 수가 있었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하기 위해서 더욱 더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에 나갈 때마다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부분을 읽을 때 눈시울을 붉힐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요셉이 바로 왕 밑에서 총리로 있을 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서 큰 소리로 울었고(창45:2) 요셉 자신은 형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창45:8). 제가 요셉과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10남매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뒹굴며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저의 육

어제와 오늘, 터키와 유럽의 테러 소식이 뉴스의 전면에 나오고 있다. 테러의 주인공은 언제나 알라는 위대하다! 라고 외치는 젊은 무슬림이다. 어느 때 부터인가 이슬람이 우리 사회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서, 시민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이 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한다.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사역하시는 원장님을 만나보니, 고난이 유익인 것을 체험한 작은 거인이었기에 그의 작은 외침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취재 이병철기자 kokkos21@gmail.com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키워드 소통하는 부부

톨스토이는 죽음을 앞두고 찾아온 딸에게 당부한 말이 있다. 아내가 내 시체에도 손을 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부부관계의 최악의 모습이 아닐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화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이 힘이다. 가정의 힘이요, 자녀의 힘이요, 부부가 서로 아는 지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건강지수가 높아진다.

가정파괴, 아동학대, 이혼 급증, 사회 범죄 증가의 현상들과 범죄 연령층이 어린 청소년들로 증가되는 것의 원인을 보면 가정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의 뒤틀림으로 발생하는 많은 현상들이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그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은 시대적 특성상 더욱 중요하고 서로를 아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결혼을 위해 혼수품 준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외적인 것은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 그러나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혼수품으로 대체되는가? 건강지수, 행복지수 높은 가정과 부부가 고가의 많은 혼수품으로 탄생되는가? 부부가 된 두 사

람이 연애시절과 데이트 정도로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결혼생활과 자녀양육, 시집과의 관계, 현실을 맞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부부 만큼 하나 되기에 좋은 관계가 없다. 부부는 창조원리로 보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르기에 더욱 좋은 관계 부부이다. 부부의 다름이 하나 되는 앎의 위력이 부부만의 특권이기도 하다. 행복지수, 건강지수 높은 부부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다름이 하나 되는 힘-격려와 힘이 되는 부부의 행복지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 성격차이, 성격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성격유형을 보면 주도형, 신중형, 사교형, 안정형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부간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성격만 알아도 서로를 존중해주며, 연애시절의 사랑을 지속시키며 갈등을 최소화 하고,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는 부부가 된다. 사소한 일 처리 하나로 마음을 다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부부관계를 보면 서로의 성격차이가 아니라, 성격과 기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혼수품 준비하듯 서로의 성격유형과 기질을 배우고, 알아보았더라면 혼수품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삶의 묘미를 키워가며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전문적인 지식과 배움을 통해 성격유형을 파악해보고, 진단해보고, 서로에게 적응해 보면 이해 할 수 없고, 이해 못하던 것이 이해가 되고, 갈등이 수용과 포용의 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수용과 포용, 관계의 힘-가정환경, 문화적 차이를 아는 것이 부부관계의 지평을 넓힌다.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그가 자라온 가정관경과 부모의 교육 방식등 그가 자란 사회의 문화영향 속에 형성된다. 20-30년의 성장기를 지나 만난 두 사람의 성격과 기질, 생활스타일과 사고방식은 같을 수 없고, 공통점이 있지만 나와 똑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성장하여 만난 두 사람이 단 둘 만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것이 긴 세월을 지나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 고민하게 된다. 서로가 어떤 가정환경과 문화 속에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 부모의 교육방식은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한다. 대화스타일이나, 일처리 방식이 일방통행, 명령하달식인지를 아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포용해 갈수 있는 힘이 된다.

어느 방식이 절대적으로 맞는다고만 할 수 없으나, 서로를 알고 나면 폭 넓은 관계의 수용과 포용능력을 터득하므로 풍성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최고봉 영적으로 하나 됨의 힘

일반적인 가정이나,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신앙문제요, 신앙생활이다. 기독교인 가정과 부부에게서 만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신앙생활, 영적인 문제다. 부부는 한 몸이요, 하나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는 그 어떤 갈등보다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 다니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부의 가정과 자녀들을 상상해보라! 꿈일까? 우리가정은 이룰 수 없는 꿈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됨이 가능하다. 그 꿈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 되게 하심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난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힘써야한다. 성격을 알고, 자라온 환경을 아는 것 못지않게 건강한 부부의 행복지수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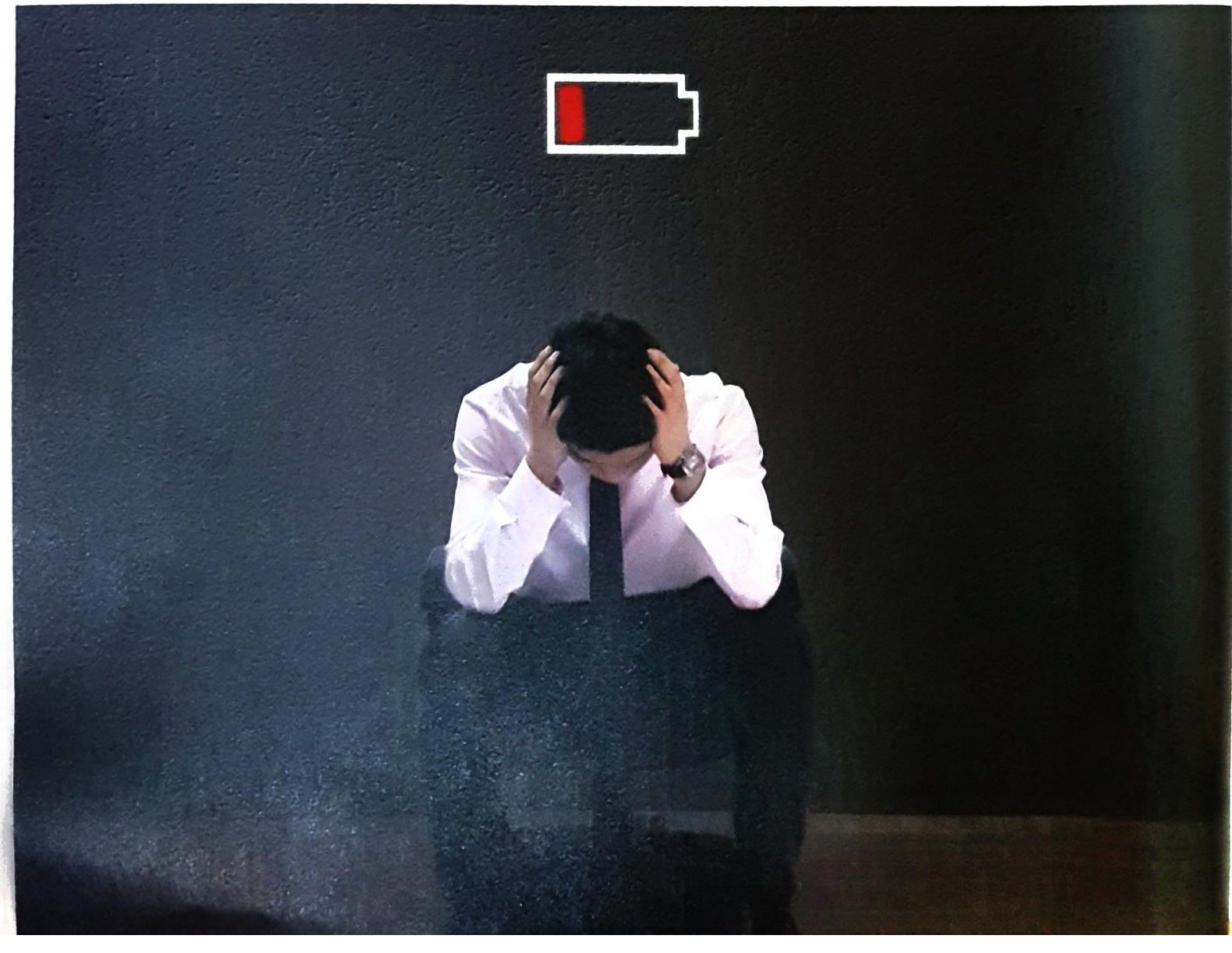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교회 다니며 부부간에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재정문제, 봉사문제, 자녀양육문제, 직분자들과의 관계문제등 많이 있다. 어떤 경우 가족 때문에, 부부 때문에 교회를 못가겠다는 경우도 있다. 아이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하는 경우도 있다. 신앙인이 부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신앙관등을 아는 것이 많은 신앙의 성숙과 동행에 아름다운 힘이 된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부부는 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동역자요, 군사로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성격유형과 기질, 자라온 가정환경과 배경, 신앙생활의 기초와 삶을 돌아보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과 돈독한 부부관계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모델,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힘입니다. 건강지수 높은 가정, 행복지수 높은 부부의 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귀한 자녀들과 가정을 세우는 원천의 힘이다.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앎의 지수를 높여 가정의 행복과 부부의 건강기법을 터득하길 바란다.

글 이연희 목사(아미교회,성시매거진 편집위원)

스트레스와 건강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환자의 마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상 많은 질병들은 환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의학적으로도 정확히 일치한다.



"생각은 반드시 뇌에서 단백질을 분해하여 호르몬을 생산하고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면 마음관리가 곧 건강관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같은 접촉사고라 해도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은 이 사고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아유, 재수 없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아유, 다행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절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각은 반드시 뇌에서 단백질을 분해하여 호르몬을 생산하고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두 가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든다.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부신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부신피질에서는 코티졸이 분비된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장기적으로 혈액 속에 높게 나타나면 만성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병 등 갖가지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우리 몸의 방위군과 같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면역세포 가운데 특히 NK세포(자연살해세포)의 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NK세포는 매일 발생하는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찾아내어 파괴시키는 세포이므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잠언 말씀에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유연한 조직인 골수는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기관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근심, 염려로 인해 뼈가 마르게 되면 적혈구 생성이 감소하여 빈혈이 생기고,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역시 감소하여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베타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만든다. 엔돌핀(endorphine)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몰핀이라는 의미로 베타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몰핀보다 200배 강한 진통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암세포를 파괴하고 면역을 강화시키며 노화 방지 및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시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만든 마약과 달리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베타엔돌핀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중독이 되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말기암에 걸려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내다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삶의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등바등 살다가 면역력 저하로 암에 걸렸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생활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베타엔돌핀이 매일매일 넘쳐서 암세포를 소멸시켜 버린 결과다.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음식, 약물, 영양제, 좋은 공기와 물 등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환자의 마음상태에 따라 치료의 결과는 아주 다르다. 감사의 마음과 치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진 환자일수록 결과는 그만큼 성공적이다.

우리 병원에는 심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자주 찾아온다. 모 대학병원 간호사가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해 진물이 심하게 나오고 그것이 굳어 혹처럼 여기저기 튀어나온 상태로 우리 병원을 찾았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고통이 심해 보였고 가려움증으로 잠을 자지 못해 몸이 아주 마른 상태였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우리 병원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치료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덕분인지 하루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피부가 회복되는 것이 눈에 보였고 2주가 채 되지 않아 병원근무에 다시 복귀했다.

또 다른 환자는 외견상 별로 심해 보이지 않는 여대생이었는데, 우리 병원에 오기 전까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약을 끊고 싶은 마음에 자연치료를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후 호전반응으로 발진이 올라오고 가려움증이 시작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거의 하루종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속상함과 불안함에 휩싸였다. 그런 마음상태로 인해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간호사보다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렸다.

스트레스와 건강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시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임을 기억하게 된다.

잠언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육체가 건강하려면 마음을 잘 관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 그 비결 역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빌립보서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건강을 누릴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글을 맺는다.

글 김태균자연의원 원장 김태균

예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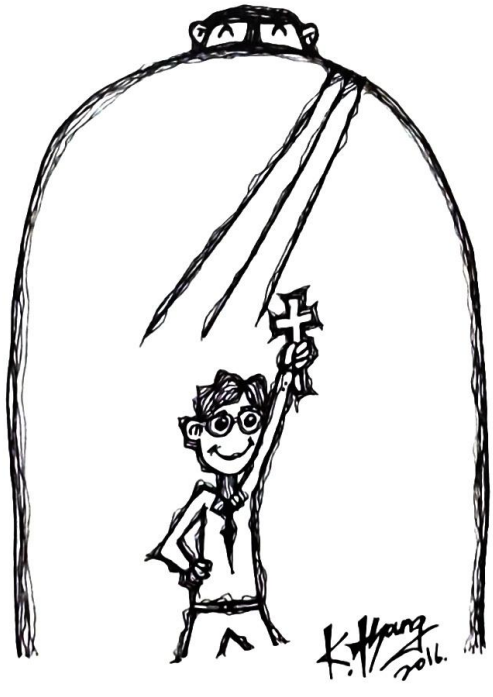
변하지 않는 사람

한 바람둥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평생 사랑하며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살다보니까 지루해지게 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자 자꾸 바람을 피웠다. 정확히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심하게 태풍을 만나 거의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생각났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설마 나 혼자도 아니고 3백 명이나 탄 배를 나 하나 죽이려고 가라앉히시겠어!"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 같은 놈 3백 명 모으느라 3년이나 걸렸다"

물론 우스갯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끝까지 진실한 사람이다. 변하기 쉬운 시대, 상하기 쉬운 계절에 변색되지 않는 사람이 되자.

글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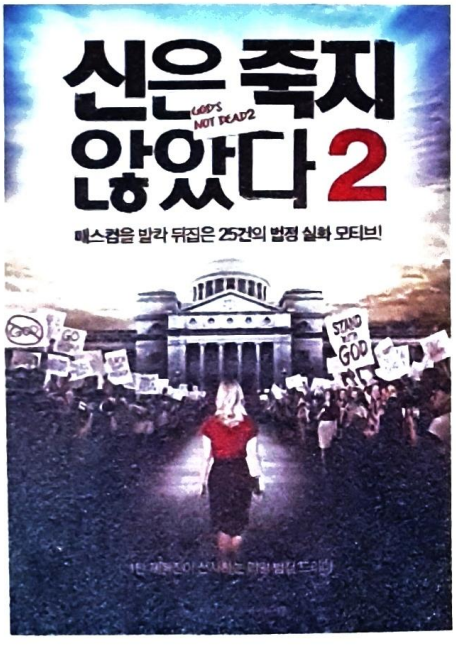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령님이 행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그림, 글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신은 죽지 않았다 2

GOD'S NOT DEAD 2



대개 속편은 전편에 비해 그 신선함이 덜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을 얻게 마련이다. 좀 괜찮은 시리즈의 영화들이 속편 이후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실망을 곧잘 주는 편이다. 그러나 가나의 포도주 같은 속편이 나왔는데 바로 작년에 소개한 〈GOD'S NOT DEAD〉에 이어 등장한 이 영화이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만난 〈GOD'S NOT DEAD〉는 나중 반응이 뜨거웠으며 성시주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상영하여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많았다. 대학교수와 학생 간의 갈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 하였던 그 유명한 영화의 두 번째인 이 영화는 우선 법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형식이다.

법정드라마 장르의 영화는 대체로 좋은 내용으로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의뢰인〉, 〈타임 투 킬〉에 이어 〈체인질링〉 등에 이르는 헐리우드 법정영화는 늘 좋은 내용으로 감동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인〉 같은 영화가 크게 히트하기도 하였다. 진실에 이르기 위한 법정 공방에서 느끼는 긴장과 감동의 조율이 이런 장르의 영화에 잘 녹아 있어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 같다.

이 코너에 소개된 영화들 중 법정드라마적인 성격의 작품에 존 덴버의 출연으로 유명한 〈오,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으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었다.

이 〈신은 죽지 않았다2〉는 본격적으로 법정을 중심으로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역사성을 변증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1편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무신론자 철학교수와 크리스천 학생의 논쟁이 주요 내용이라면 2편은 고등학교에서 크리스천 교사로 역사 수업 중에 일어난 발언에 대한 법정 투쟁이 그 내용인 것이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 '그레이스'는 사고로 오빠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여고생 '브룩'에게 성경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오빠의 유품에서 성경을 발견한 '브룩'은 오빠도 같은 길을 걸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던 중 '브룩'은 간디의 사상이 예수님의 뜻과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레이스'에게 질문한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대답을 한 '그레이스'. 하지만 그 답으로 인해 그녀는 학교에서 금지된 종교편향적 발언을 하였다고, 실직은 물론 엄청난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

무신론자 변호사 '톰'과 함께, 학교 이사회와 미국 시민자유연맹에 맞선 '그레이스'는 자신의 모든 걸 던져 법정에서 그것의 부당함을 증명해 나간다.

초반은 상대방의 철저한 준비로 불리해 보이지만, 예수의 역사성을 증명하며, 역사시간에 예수를 언급한 것이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여 재판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전에 했던 신앙적 상담이 문제가 되어, 다시 종교편향적인 교사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지만... 결국 그녀를 따르는 학생들의 기도와 그녀의 믿음과 정직이 배심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상 네티즌 lifedoumi님의 블로그에서 아주 잘 정리된 스놉시스를 소개한다. 감독 역시 1편을 만든 해롤드 크론크이며 대체로 새로운 얼굴의 배우들이 출연하였다.

거의 DVD나 영상파일로 이러한 믿음의 영화를 접하는 필자로서는 모처럼 영화관에서 시원한 스크린으로 감상한 작품이다.

글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라면 이야기 (2)

6.25동란 피난길에 쌀은 고사하고 감자, 고구마도 없어 끼니를 굶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손자는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라고 할 정도로 라면은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주 귀중한 식품이 되었다.

재해지역의 첫 구호품도 라면이고 자취방 주식도 라면이고 해외여행을 갈 때도 라면을, 특히 뜨거운 물만 부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많이 가져가는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라면 값이 갈비탕과 똑같으니 라면을 가져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라면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아마도 "또 라면이니?" 라는 말일게다. 다시 말해 "너 몸이 쓰레기통이니? 허구한 날 낮이고 밤이고 라면만 먹으니 그렇게 똥배가 나오지!"라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악착같이 라면을 먹는 이유는 우선 라면이 맛있고 값도 싸고 조리시간도 짧기 때문이다.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엔 짬뽕라면 보단 비빔면이 대세다. 하지만 비빔면은 맛있기 하지만 설거지를 하다보면 다른 라면에 비해 유독 기름기가 많아 이 기름이 내 똥배에 차곡차곡 쌓였을 거라 생각하니 영 찜찜하다. 그리고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밀가루 음식이라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먹는 라면이기에게 경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라면을 먹되 퉁퉁 부은 내 똥배와 한 가지 약속을 한다. 라면은 면만 건져먹고 국물을 마시거나 국물에 밥을 말아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면도 좋은 점도 있다. 우선 식중독에 걸릴 염려도 없고 먹다 남은 라면을 재활용하는 식당은 없을 것이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는 1인분에 40만

원씩 하는 일본 유명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생선회를 모듬회로 사용하고 남겨진 생선을 구워서 다시 사용하다 종업원의 고발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깃집에선 짬장과 물김치를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일까? 필자는 음식 값이 저렴한데 비해 반찬의 종류와 양이 많은 음식점은 잘 가질 않는다.

라면하면 먼저 일본을 떠오르게 한다. 아주 오래전 TV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의 철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수시로 먹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 일본에 가면 일본 라면을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 가서 라면, 라멘을 먹었는데....생각보다 입맛에 맞질 않아 한 젓가락 뜨고 안 먹은 기억이 있다.

일본라멘은 우리와 달리 국물보다 면을 더 중요시한다. 그렇게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국물을 남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은 마시고 면을 남긴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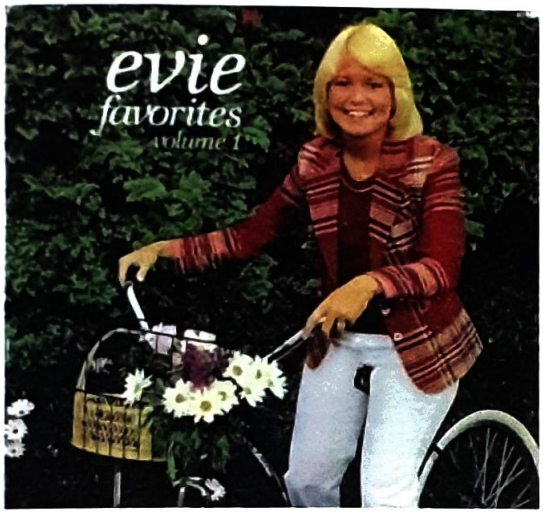
춘천에도 매운 라면이다 일본라멘이다 하여 음식점 틈새시장으로 라면전문점 창업을 많이 했지만 거의 문을 닫았다. 필자가 보기에 폐업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아주 오래전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CF라는 인기를 몰았던 개그맨 이창명이 창업한 라면 전문점처럼 '라면의 고급화'를 선언하며 값비싼 인테리어에다 남다른 레시피로 음식을 조리하는데 20분 이상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라면 값이 시중보다 4~5배 이상 비싸다 보니 곧 문을 닫았다. 라면은 그냥 라면일 뿐이지 예술이 아니다. 한마디로 라면에 와인까지 먹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자기 환상에 빠져 창업을 한 뒤 1년도 안되어 폐업을 한 음식점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절에서는 스님들이 먹는 라면, 즉 육류가 포함되지 않는 라면이 따로 있다고 한다. 그럼 우리 성도들을 위한 라면을 만든다면 그 라면의 상품명은 무엇일까?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떡을 나누며 성도 간에 교제가 있듯이 '주와 함께라면' 이라고 하면 어떨까? 좀 우스개 소리인지 아재개그인지는 모르지만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름 깊은 뜻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라면' 은 매일 과식해도 좋다.

글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에비 EVIE TORNQUIST 1956- :

GIVE THEM ALL 주님께 드려요



미국 서부에서 보내고 있는 일정 가운데 이제 주어진 안식월의 마지막 몇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민족의 어울림의 거대한 대륙의 특징인데요 예전엔 모자이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녹여내는 "멜팅 팟"MELTING POT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찌게 솥' 처럼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지요. 문화와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흑인들의 음악성이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재즈를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의 영혼의 자유스러움이 표현되었다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음악 가운데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백인계 이주자들이 남부지방의 애팔라치아 산맥에서 자리잡기 시작했을 때인 1920대를 중심으로 유행한 칸츄리 음악들도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음악들이 장르를 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통과 전통의 음악성이 많이 희석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부를 중심으로 네쉬빌의 음악은 칸츄리의 본고장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부의 전통은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여러 유럽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들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칸츄리 풍의 곡조들에 익숙한 음악들이 유행됩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들어봄직한 가수들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교회의 성가대 출신인 것은 바로 이러한 전통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처음으로 가스펠이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한국 교회에 소개할 당시인 7080 시절에 유행했던 복음성가 가수 중에 〈에비〉역시 남부 전통에 익숙한 북구 유럽의 이민자출신 자녀였습니다. 그녀의 〈주님께 모두 다 드려요 GIVE THEM ALL〉는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앨범을 다시 구할 수 있으면 수록된 다른 곡들 가운데 가령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든지 〈저 장미꽃의 이슬〉같은 곡들의 칸츄리 풍 CCM복음성가의 흥겨운 멜로디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요 GIVE THEM ALL〉의 우리말 가사를 들으시면 아,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2.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궂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 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 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오랜 만에 흥겨운 칸츄리 복음성가를 들으며 예전 청년시절의 추억 속에 잠겨보시지요… 이제 장마와 무더위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구 반대편의 대륙에서 오래 전 여행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부르심과 사명에 사로잡혀 몇 달을 배멀미와 싸우며 은둔의 나라 조국에서 일하시다 이름도 없이 양화진에 묻힌 무명의 선교사님들과 민족상잔의 전쟁에서 산화한 많은 무명 용사들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은 조국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와 분열 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인류를 위한 기여와 발전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를 기대해보는 6월의 끝자락에… 태평양을 바라보며 슬픔을 달랬던 도산 선생과 수많은 나그네 이민자들의 땅에서 다니가 보내드립니다.

글 김금찬 선교사(JDM)

알려드려요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9947-9631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0-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안내

· 일시 : 월~금,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린이도서관

· 내용 : 어린이 대상 다양한 도서구비 및 독서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033)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⑦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대학교탐방 등)

· 일시 : 월~금, 오후17시30분~19시30분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033)254-7244(내선3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⑧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격증 교육)

· 일시 : 2016년 8월 16일~ 11월 1일(매주 화요일), 오후7시~ 10시 30분

· 장소 : 한림미술치료센터

· 문의 및 신청 : 한림미술치료센터 263-7572 / 010-7467-4856

기독교사역자는 교육비 할인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신촌정보통신학교 세례식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서는 지난 5월 30일(월) 오전11시에 출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세례식이 있었다. 소망선교회(윤선애집사)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날은 최영두목사(샬롬교회)의 인도로 찬양과 말씀선포가 있었고, 서울온누리교회 사회복지팀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섬겼다.

강기총 정책세미나



강원기독교총연합회(서석근목사) 주관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를 위한 2016 정책세미나가 지난 5월 30일(월)~31일(화)에서 세종호텔에서 있었다. "이날은 21세기 레저 관광도시 평창(최석호박사)", 강원의 역사문화와 강원 기독교사(노성호박사)", 평창동계올림픽과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전병길박사)"의 주제 강연이 있었고, 31일에는 GOP초소 교회 방문예배를 가졌다.

교경협의회 일일 부흥회



경찰가족과 춘천시 복음화를 위한 "2016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박재영목사)" 일일부흥회가 6월 19일(주일) 저녁7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 있었다. 이날은 수석부회장 김한호목사(동부교회)의 사회, 대표기도에는 지태성목사(춘천장로교회), 회장 박재영목사(소망성결교회)의 인사말씀에 이어 강사는 박철환선교사(필리핀 아이따족)의 말씀선포, 양기태목사(신남감리교회)의 헌금기도, 총무 김원중목사(춘천우리교회)의 광고가 있은후,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축도로 교경협의회 일일부흥회를 마쳤다.

한아름선교회 창립예배



한아름선교회(Chuncheon Total Commission Service Association)가 지난 6월 19일(주일) 오후7시30분에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한아름선교회(홍요셉이사장)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춘천성시화, 복음적 평화통일, 한.중.일 연합 및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합력해서 선교하는데 목적을 두고 창립하게 되었다. 이날은 이병철목사(주향교회)의 사회로, 박희문장로(고은장로교회)의 대표기도, 정덕현목사(푸른초장교회)의 "마태 28:18-20"의 성경봉독이 있었고, 조영춘목사(예사랑교회 선교목사), C국 정운도선교사, 일본 장금순선교사의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홍요셉목사(예사랑교회, 이사장)의 "지상명령"이란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또 강종원목사(남춘천교회)의 축사, 심재훈목사(한울섬김교회)의 헌금기도 후 김수복목사(거성교회)의 축도로 창립예배를 마쳤다.

군.민 6.25 상기 및 평화통일 기원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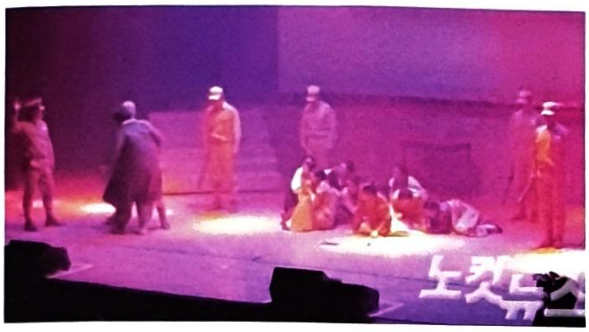
"군.민 6.25 상기 및 평화통일 기원예배"가 6.25 상기 66주년을 맞아 조국의 슬픈 역사를 잊지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6월 26일(주일) 오후2시30에 신성감리교회(박상칠목사)에서 열렸다. 이날은 박상칠목사(신성감리교회)의 사회로 하영재집사(2군단 참모장)의 대표기도, 이대화장로(충남선교회 회장)의 성경말씀 "시편127:1" 봉독에 이어 호산나찬양대의 찬양이 있었고, 강사이신 정만길장로(광림교회, 예비역중장)의 "조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열정적인 강의가 있었다. 기독장병일동의 특송이 있은 후, 평화통일을 위해, 장병복음화를 위한 통성기도 후, 홍세표장로(신성감리교회)의 광고, 6.25 노래 제창과 이병길목사(2군단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6.25를 맞이해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강철주 장로) 에서도 기도회를 가졌다. 제1회 6.25 구국기도회가 6월 25일(토) 오후4시에 창대감리교회(이성신목사)에서 있었다. 제1회 6.25 구국기도회는 실황은 본지 성시화 면에 정리되어 있다.

ONE HEART KOREA TOUR 춘천



ONE HEART KOREA TOUR 춘천이 6월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 모든 분열과 저주를 끊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하늘 가족 됨을 누리는 집회로, 전국 7대 도시(광주 서울 대전 춘천 대구 부산 제주)를 투어 하는데 네 번째로 춘천에서 가진 모임이다. 이날은 백주석목사(광주 포도원교회)의 말씀선포가 있었고,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방문해 함께 찬양과 기도로 다음세대와 어우러져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 공연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 뮤지컬 공연이 6월 25일(토) 저녁7시30분에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강원CBS 창립 21주년 기념으로 열렸다.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 뮤지컬은 충청남도 천안 매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18세의 유관순이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다가 3.1운동 이후 휴교령으로 고향에 내려와 "침묵하는 것은 천왕에게 굴복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호서지방 최대의 독립만세 운동이자 군중 3000여명이 참여한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 일으켜 주도자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다 죽기까지 교회사적인 시각으로 다룬 뮤지컬이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유일한 슬픔이라고 유언하는 유관순의 고백이 관람했던 모두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원CBS 창립21주년 춘천기독교연합선교대회

강원CBS 창립21주년 기념 춘천기독교연합선교대회가 지난 7월 3일(주일) 오후2시30분에 안디옥감리교회(유진형목사)에서 열렸다. 박상칠목사(춘기연 수석부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사회, 유진형목사(안



디옥감리교회)의 환영사에 이어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있었다. 박찬욱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장, 새순성결교회)의 대표기도와, 강철주장로(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장, 창대감리교회)의 "마태 28:18-20"의 성경봉독과 차덕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침례교회)의 인사말씀과 강사소개가 있었다. 이어 이날 강사이신 이영훈목사(기하성총회장, 한기총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란 말씀선포가 있었고 나이영본부장(강원CBS)의 CBS사명과 비전에 대한 인사말씀 후, 김창환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온누리교회)의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신천지 및 이단사이비 척결, 강원CBS신사옥 건축을 위하여, 춘천기독교역사기록 책발간을 위한 기도인도가 있었고, 오의석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순복음조은교회)의 광고에 이어 원종국감독(강원CBS 운영이사회 부이사장, 춘천제일감리교회)의 축도로 선교대회를 마무리했다. 특별히 이날은 강원CBS 사옥건축을 위해 약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CBS가 주의 뜻에 따라 언론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옥 건축이 풍성한 은혜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이 요청된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김창환목사)가 7월 1일(금) 오전7시에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 날은 10월 성시선교대회를 기획하며 기도하기 위한 모임으로 가졌다.

제10회 춘천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



제10회 춘천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이 7월 9일(토) 오후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다. 올해에는 일반인들도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살던 고향은"이란 제목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정겨운 가곡 축제로 기획되어 공연하였다. 춘천성시합창단(남궁연 단장)과 아뉴스오페라단, 아리랑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 합동으로 공연했고, 상현교회 어린이합창단의 찬조출연이 있었는데, 사계절에 맞춰 만남, 사랑, 이별, 그리움이란 주제로 들려준 한번쯤은 들어봤을 가곡들이 고향에서 가졌던 추억을 잔잔히 생각나게 하였다. 총감독과 지휘에는 윤창호님, 연출은 김봉진, 피아노에는 박실, 작곡/편곡에는 임영빈, 음악지도에는 민애리자, 나레이션에는 박윤경 강원CBS 아나운서가 맡았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 중국선교여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김창환 이사장)에서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창환이사장을 비롯 6분의 임원과 박철환선교사(필리핀)가 중국삼자교회를 방문하여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삼자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교회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한국 선교에 대해서도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금번 여행이 성시화운동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여행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통일광장기도회



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는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27일(월)에는 조영춘목사(예사랑교회 선교목사)가 7월25일(월)에는 윤재선목사(산천무지개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였다. 통일광장기도회에서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미래이기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선진조국, 통일조국, 선교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춘천교회 故김주환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및 역사관 개관식



故 김주환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및 역사관 개관식"이 교계지도자와 성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6일(토) 오후 2시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담임 이수형 목사) 본당과 역사관에서 있었다.

추모예배에서는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의 사회, 우상종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장로회장)의 기도,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추모영상 후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신성감리교회 김창수 원로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신 김주환목사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늘 겸손하고 긍정적이며 교회를 사랑하시던 김목사님과의 두터웠던 우정을 말씀하며, 의인의 죽음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건히 하자"고 선포하셨다. 이어 자부인 송윤진 집사(신촌성결교회)의 특별찬양, 오미화 권사(순복음춘천교회)의 추모시 낭독이 있었고, 추모사에서는 원종국감독(춘천제일감리교회)은 "사랑과 섬김의 목회를 하시며 늘 감사하시던 김목사님"을 추모했고, 육병렵 목사(신대순복음교회), 최동용 시장(춘천시), 조남진 원로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추모사 후, 가족대표로 차녀인 김은영CBS 아나운서 부장의 인사와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아버지 같았던 김목사님이 뿌려 놓으신 눈물의 씨앗들이 계속 열매를 맺어 갈 것"이라는 인사말씀에 이어 오황동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역사관 개관식이 이어졌다. 역사관는 개척관, 성장관, 섬김과 나눔관, 해외선교관, 감사관, 미래와 비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복음춘천교회 44년의 역사와 미래비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개척 초기 빛바랜 주보부터 정기간행물, 기념품, 책자, 故 김주환 목사가 받은 감사패와 감사장, 팜플렛 등을 비롯해 성도들이 소중히 간직해 온 역사적인 자료들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되어 교회성장과 발전의 생생한 모습들까지 테마별로 볼 수 있다.

취재 편집부

만나된장

● 주 재 료 : • 순 국산콩 100% 사용
• 5년이상된 전남신안소금 100% 사용
● 보관방법 : • 콩과 소금 이외에 전여 다른 물질을첨가하지 않았으므로
• 냉장보관
• 실외보관시 항아리 또는 옹기뚱에넣어 햇볕 잘 쬐워 양지바른 곳에 보관

Manna

TEL : (033) 252-2006
H.P : 010-9772-6949



농협 : 301-0059-2680-11 만나양봉

만나꿀

Manna

만 나 양 봉
TEL (033) 252-2006
H . P 010-9772-6949

www.만나.com



01-0059-2680-11 만나양봉

춘천성시매거진에서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33-256-1260

후원자 명단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남훈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동환 박덕남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서묘석 서성진 석지찬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성균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준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임우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미영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명수 한정연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시온성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아미교회 엠마오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아가갤러리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처방전카페

후원계좌 안내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033.256.1260

KNUH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를 소개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말기 암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전인적 돌봄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치료 대상자

- 수술, 항암 및 방사선요법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
- 주치의가 완화의료적 치료를 추천하는 환자

입원 절차

입원환자 (담당의사와 상의)

외래 환자

완화의료팀 협진 의뢰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전산등록)

입원 결정

특화된 서비스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조절, 기본간호, 목욕, 스트레칭 체조, 아로마 마사지

영적 돌봄
기도, 상담, 종교별 원목자 연결

사회 경제적 돌봄
전담사회복지사 상담 및 서비스 자원연계

심리 정서적 돌봄
원예, 미술, 다도, 가족교육, 영화상영, 음악회

상담문의: 033-258-9060/9063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제 71주년 8·15

광복절

기념연합예배

강사/ 이덕주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일시/ 2016. 8. 14(주일) 오후 7시30분

장소/ 석사감리교회(손학균목사)

주관/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예배에서 드려진 예물은 춘천지역 원로 및 은퇴 목회자 부부 섬김을 위해 쓰입니다.

모임일정: 2016년 8월 18일(목) 낮11시30분 곰배령